

Sulwhasoo

VOL.97

Sulwhasoo

VOL.97 2021



2021



좋은 소식 붓꽃과장인 / 이지숙
테라코타 위에 아크릴 채색 / 2020

가만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말을 걸어 오는 작품이 있다. 이지숙 작가의 책가도가 바로 그려하다. 눈길 닿는 곳곳에 이야기가 맺혀 있고, 구성된 사물들은 익숙하지만 불현듯 낯선 언어가 들려와 오래도록 귀 기울인다. 익히 알고 있는 대로 학문을 숭상했던 옛 선비들의 고매한 취향이 담긴 그림이 아니라, 작가의 일상에 머무는 소소한 물건들로 채워진 고유의 이야기가 흥미를 자아낸다. 어머니가 느껴지는 자개, 직접 사용해온 화장품과 아끼는 화병 등 보통의 물건 같지만 특별하고 유일한 기물들이다. 책가도의 주인공인 책을 선택하는 방식도 남다르다. 평소 책을 가까이하는 작가가 직접 읽고 권하는 책의 표지를 그대로 담아 감상자에게 사유의 시간을 선사하고, 현재의 삶에 대해 진지한 질문을 던진다. 이 책가도가 더욱 독특한 점은 도자 공예라는 점이다. 흙으로 부조 형상을 만들어 구운 테라코타 위에 아크릴 물감으로 색을 입히는 도자 회화를 구축하느라 작업 과정엔 고된 노동이 더해졌다. 결국은 우아하고 경이로운 풍경으로 빛어져 반갑고 감사하다. 좋은 소식처럼 말이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Some art pieces just speak to you when you patiently look into them. Scholar's Accoutrements by Lee Ji Sook is exactly one of those artworks. Every inch of the relief has a story to tell. Each featured item seems familiar, but somehow suddenly evokes the image of an unfamiliar language at the same time, making you listen carefully for a while. Rather than depicting elegant objects often used by our ancestors who worshiped academics and scholarship, Lee's Scholar's Accoutrements piece includes unique and intriguing small items from her everyday life. The mother-of-pearl she inherited from her mother, cosmetic products she uses, and a vase she cherishes may seem like ordinary objects, but they are special and one-of-a-kind items. Even the way Lee chose her books, the main subject of the Scholar's Accoutrements piece, is different. Lee is an avid reader, and by putting the cover of a book she has read and one she recommends, she gives viewers a moment to think and ask serious questions about their lives in the present. What makes this Scholar's Accoutrements distinct is that it is made of terracotta. The process of creating a painted terracotta, in which Lee used acrylic paint on ceramic that was baked to make a relief, was labor-intensive. But, ultimately, the effort was worth it, given the elegant and extraordinary landscape that the terracotta piece produced. Just like good news.

Youth Master Technology의 강력한 안티에이징
윤조에센스

First Care Activating Serum



6만 분의 1에서 찾아낸 Youth Master Technology로 피부 장벽을 다각도로 케어해

더 힘 있게 빛나는 피부로 만들어주는 안티에이징 부스터입니다.

An anti-aging booster that takes care of the skin barrier from multiple angles using

Youth Master Technology developed from a pool of 60,000 possible

alternatives to make the skin more powerful and radiant.



Sulwhasoo

VOL.97 2021

시간의 지혜로 빛나는 아름다움, 설화수

설화수는 여성의 아름다움이 과거의 한순간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진화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생애에 존재하는 본연의 아름다움을 자신감 있게 누릴 수 있도록, 설화수는 시간의 흐름에도 건강하게 빛나는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설화수는 진귀한 한방 원료의 피부 효능에 주목해왔으며, 그 연구는 하늘이 선사한 최고의 명약으로서 전 세계의 인정을 받은 고려 인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50여 년 연구 끝에 피부에 경이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고려 인삼 속 핵심 효능 성분을 탄생시켰고, 이는 설화수만의 독점적인 주요 효능 성분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설화수는 전통의 지혜와 현대 과학을 접목하여 끊임없이 혁신을 시도합니다. 혁신의 결정체인 설화수 한방과학 연구센터는 고서에 담긴 비방을 현대 과학 기술로 재해석하여 3,912가지 식물 조합의 효능을 검증하고, 여성의 나이에 따른 피부 변화를 심층적으로 연구합니다. 원료의 순도와 효능을 극대화하고 유효 성분을 피부에 전달하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더해 설화수만의 가장 진보한 피부 솔루션을 전합니다.

Sulwhasoo deeply believes that beauty does not deteriorate over time, instead it evolves. At every milestone in life, a new irreplaceable radiance is awoken. Sulwhasoo defies time and reveals healthy and radiant beauty that redefines time and space.

Korean Ginseng, a gift from time, is the rare and delicate traditional Korean ingredient. After 50 years of dedicated and faithful research on the inimitable Korean Ginseng, Sulwhasoo successfully invented an exclusively rare element from Korean Ginseng that transforms the destiny of skins. This exclusive ingredient of Sulwhasoo continues to be refined by time.

Rooted in its genes, Sulwhasoo continues to innovate by infusing wisdom with modern science. Sulwhasoo Heritage and Science Center is conducting the research on transcending the ancient medical method and cutting edge skin science, verifying efficacy of 3,912 complex of herbs, with in-depth research on women's skins of all ages. As a result, Sulwhasoo witnessed the rise of a revolutionary skin care philosophy, led by Korean advanced technology.

Sulwhasoo

VOL.97 2021

펼 치 다



〈Sulwhasoo〉는 설화수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주)아모레퍼시픽에서 발행하는
고품격 VIP 메거진입니다.

발행일·2021년 4월 5일(통권 제97호)

발행인·인세홍 편집인·강병영

발행처·주아이모리파티 기획 및 제작·설화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팀(이수진 김미래)

제품 문의·고객상담팀(080-023-5454, 수신자 요금 부담)

편집, 디자인·기아 미디어 02)317-4921 편집·박효성 디자인·이경보

사진·GURU visual 02)745-6123 시스템 출력·덕일 인쇄·(주)태산인팩 02)853-6574

〈Sulwhasoo〉는 강행글윤리위원회의 신의규정을 준수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Sulwhasoo〉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Sulwhasoo〉는 www.sulwhasoo.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08
설화지혜
힘 있게 빛나는 피부를 위한 장벽 케어
- 12
피부 섬기기
비범하고 강인하게 남성의 피부를 다스리다
- 16
아름다움은 자란다
내 아름다움이 자라는 장소, 책상
- 22
新 장인을 만나다
세상의 모든 것엔 시점視點이 있다
- 28
공간미감
아득한 신라, 새로운 아름다움

12

16

22

28

36

44

50

54

60

66

72

78

84

90

92

98

08

설화지혜

힘 있게

빛나는

피부

를

위한

장벽

케어

기획 및 제작

설화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팀

(이수진 김미래)

제품 문의

고객

상담

팀

(080-023-5454,

수신자

요금

부담)

편집, 디자인

기아

미디어

02)317-4921

편집

박효성

디자인

이경보

사진

GURU

visual

02)745-6123

시스템

출력

덕일

인쇄

(주)태산인팩

02)853-6574

50

설화경

사루사루

내려앉는

빛

의 서정

새로운

길에

피어난

공예의

봄날

54

설화보감

자연을

조화롭게

버무린

밥상

58

설화보감

자연을

조화롭게

버무린

밥상

62

설화수를

말하다

눈부시게

황홀한

빛을

미급다

66

설화공간

내면의

아름다움을

찾는

도심

속

프라이빗

여행

72

설화공간

내면의

아름다움을

찾는

도심

속

프라이빗

여행

78

배움의 기쁨

정신을

맑게

하는

선듯한

바람처럼

92

프로덕트맵

98

독자 선물

누 리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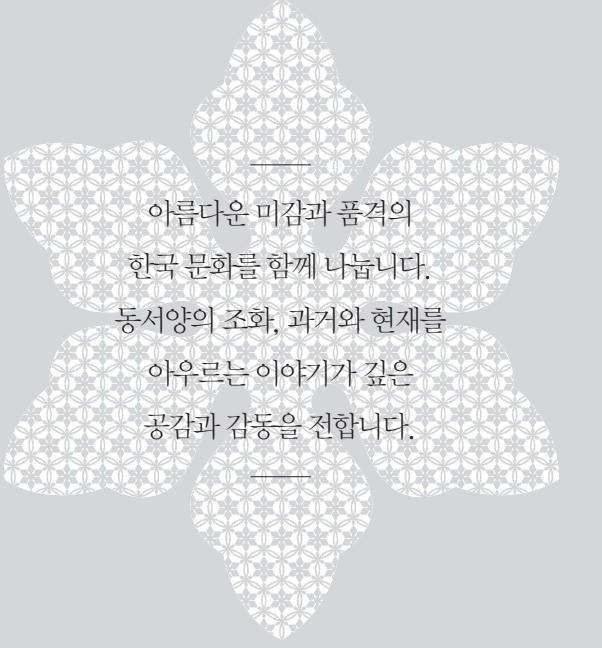


익 히 다





페
리
다



아름다운 미감과 품격의
한국 문화를 함께 나눕니다.
동서양의 조화,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이야기가 깊은
공감과 감동을 전합니다.

힘 있게 빛나는 피부를 위한 장벽 케어 Barrier care for strong and radiant skin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은 건강한 피부에서 찾을 수 있다.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관리해 건강한 바탕을 만들어야 힘 있게 빛나는 피부가 완성되는 것. 이를 위한 설화수의 지혜로운 해결책을 윤조에센스에 담았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중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피부는 인체 건강을 지키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는 <동의보감>에서 정의하고 있는 피부의 역할로 설명할 수 있다.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최초의 관문이자 몸속 장기를 보호하며, 체내 찌꺼기 를 배출해 신진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전한다. 또한 마음의 상태와 몸속 오장육부의 질환 여부를 보여주는 거울로 여겼다. 그러므로 탄탄한 피부 장벽은 건강과 아름다움, 정서적 안정까지 도모한다는 점에서 단단하게 쟁기는 것이 옳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피부의 힘을 앗아 가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 노화를 비롯해 강렬한 자외선, 자주 섭취하는 카페인, 하루 종일 비추는 블루 라이트까지 피하기 힘든 다양한 자극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한 해결책이 필요 한 것이다.

Skin is the first and last fortress that keeps the human body healthy. This is best explained in the description of our skin's function, which is found in "Donguibogam." The book says that the skin is the first gateway that filters external stimuli, protects organs in the body, and discharges body waste to facilitate our metabolism. Also, it defines our skin as a mirror that reflects the state of a person's mind and the presence of disease in five major organs. Thus, taking care of your skin is the right and necessary thing to do since a firm barrier can keep you healthy, beautiful, and emotionally grounded. Our skin, however, is constantly bombarded by elements that can potentially weaken it. That is why we need a special solution designed to help our skin cope with various stimuli, such as powerful UV rays, frequent intake of caffeine, and around-the-clock exposure to blue light, all of which may be difficult to avoid in our day-to-day lives. Fortunately, Sulwhasoo has found wisdom from our traditions, and infused modern science into it to come up with a solution. Sulwhasoo carefully digitized and analyzed numerous com-



꽃을 눌러 보관하는 압화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동백꽃 모양의 아크릴 플라워는 스튜디오 리포소.

설화수는 전통에서 지혜를 찾고 현대 과학으로 방책을 마련했다. 아시아의 저명한 고서에 기록된 1,041여 가지의 원료와 약 3,912가지의 활용 방법에서 수많은 조합을 디지털 데이터화하고 피부에 어느 정도 효능을 보이는지 정밀하게 분석했다. 엄격한 연구를 통해 안티에이징과 피부 장벽 케어에 가장 효과적인 원료 조합과 황금 비율을 찾아내 자음액티베이터™를 완성했고, 윤조에센스에 그 정성을 담았다.

설화수 24년 연구의 집약, 6만 분의 1에서 찾아낸 단 하나, 피부 장벽 마스터 키로 완성하는 Youth Master Technology가 피부의 안과 밖 장벽을 동시에 케어해 피부 방어력과 보호력을 강화해준다. 더불어 탄력, 자생, 항산화, 윤기 등 정점에 오른 안티에이징 효능을 선보인다.

안티에이징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면 윤조에센스만으로도 충분하다. 피부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가꾸고 건강한 바탕을 만들어 수분량과 피부 빛, 투명도, 윤기와 주름 등을 개선해주는 뛰어난 능력 때문이다. 하지만 피부 상태가 눈에 띌 정도로 나빠진 상황이라면 윤조에센스로 무너진 기본을 세워 피부의 힘을 단단하게 다지고, 그 위에 탄력과 주름 등을 집중 케어하는 제품을 함께 사용하면 안티에이징 효과가 극대화된다. 하나만으로도, 혹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매번 완벽한 안티에이징을 선사하며 힘 있게 빛나는 피부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윤조에센스이며 설화수가 생각하는 건강한 아름다움의 근간이다. S

binations of more than 1,041 raw ingredients and 3,912 or so techniques recorded in renowned Asian medical textbooks to determine how effective they could be on human skin. After rigorous research and testing to find the most efficient combination of ingredients and the “golden ratio” for anti-aging and skincare barrier-reinforcing efficacies, Sulwhasoo developed the JAUM Activator™, and channeled its commitment to create the First Care Activating Serum. Youth Master Technology was discovered through 24 years of meticulous research at Sulwhasoo. It is the result of 60,000 different technologies, and holds the “master key” that unlocks your skin’s potential to create a stronger barrier. Simply put, it takes care of your skin’s barrier inside and out, boosting its ability to defend and protect the skin against the elements. Furthermore, it delivers the best anti-aging efficacies that deliver resilience, regeneration, anti-oxidation, and radiance.

If you are new on this anti-aging journey, the First Care Activating Serum will prove to be more than enough for your needs. It will take excellent care of your skin to enhance its basic physical strength, improve its hydration, brightness, translucency, and radiance, and reduce wrinkles by creating a healthy foundation. However, if your skin is already showing noticeable signs of deterioration, you should use the First Care Activating Serum to restore the structure inside your skin and create a firmer base, and then use other intensive care products designed to increase resilience and reduce wrinkles for maximum anti-aging benefits. The First Care Activating Serum on its own can provide perfect anti-aging benefits every time you use it, and make your skin strong and radiant, which is what Sulwhasoo believes to be the foundation of healthy beauty.

윤조에센스

세계 최초의 피부 장벽 마스터 키
발견으로 완성된 Youth Master
Technology로 피부 장벽을 다각도로
케어해 더 힘 있게 빛나는 피부를
선사하는 필수 안티에이징 부스터.
피부 장벽을 멀티케어해 건강한 피부
비팅으로 가꿔준다.
세안 후 첫 단계에 사용하여 피부
자생력과 보호력을 강화하고, 피부
장벽의 결과 속을 동시에 관리하는
진정한 안티에이징이 가능하다.
다양한 피부 타입에서 빠르고 신속하게
흡수되고, 편안한 향으로 감각적인
만족까지 누릴 수 있다.
60ml 9만7000원대, 90ml 13만원대



비범하고 강인하게 남성의 피부를 다스리다 Creating extraordinarily strong skin for men

강인함 속에 의외로 연약한 남성의 피부이기에 세심하고 근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설화수 안티에이징의 정수가 담긴 정양단이 노화의 징후부터 손을 쓰는 본윤 라인으로 남성 피부는 독보적인 품격을 완성한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피부에 나타나는 노화 현상은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는다. 오히려 남성의 피부는 여성에 비해 외부 자극에 취약하다. 똑같은 외부 자극을 받아도 피부의 수분 손실 정도가 높아 회복 속도가 더디고 피지 분비량이 많아진다. 게다가 노화의 가속도는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빠르다. 나이가 드러나기 전에 남성 피부에 최적화된 처방으로 근본적인 관리와 예방을 해주는 '남성을 위한 안티에이징'이 필요한 것이다. 설화수의 본윤 라인은 '정양단'의 에너지를 통해 시간 앞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남성의 피부를 완성해준다. 강력한 항산화 방어력을 발휘하는 정양단은 영지, 황금, 가시오가피, 건강(말린 생강), 황백나무 수피를 배합하고, 약재의 양기를 강화해 효과를 높이는 주증법으로 포제해 얻은 귀한 원료다. 본윤에센스는 정양단을 비롯해 맥문동, 인삼 추출물까지 담았기에 독보적인 안티에이징이 가능하다. 주름과 탄력, 칙칙함 등을 해결하며 워터 젤 타입으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한다. 보다 깊은 보습과 진한 영양을 채우는 것은 본윤유액이 담당한다. 본윤유액의 정양단은 항산화 효능에 힘을 더하고 인삼 추출물, 감초 추출물이 보습과 방어력을 책임진다.

In fact, male skin is more vulnerable to external stimuli than female skin. The best way to do so is to offer "anti-aging solutions for men," which involves managing male skin at a fundamental level through optimized prescriptions for male skin before signs of aging begin to appear. Sulwhasoo Men Line uses energy from "Jeongyangdan" to produce male skin that stands the test of time. Jeongyangdan, which delivers strong, anti-oxidating benefits and skin defense efficacies, features a combination of Ganoderma Lucidum, Skullcap, Acanthopanax, dried Ginger, and the bark of the Phellodendron Amurensis tree. It is a rare ingredient that enhances the "Yang" (vitality) energy of the medicinal ingredients produced by the Alcohol Steamed ProcessTM. The Recharging Serum's unparalleled anti-aging efficacies are due in large part to Jeongyangdan, Dwarf Lilyturf, and Ginseng extracts. It alleviates wrinkles, boosts resilience, and improves dullness. If you want deeper moisturizing and richer nourishing, you can try the Skin Strengthening Emulsion. Jeongyangdan, which is featured in the Skin Strengthening Emulsion, focuses on maximizing anti-oxidizing benefits, while the Ginseng extract and Licorice extract take care of moisture and skin defense.

본윤에센스

정양단이 항산화 효능을, 맥문동과 감초 추출물이 피부 진정 효과를 발휘해 남성 피부의 주름, 탄력, 칙칙함을 종체적으로 관리하는 워터 젤 타입의 안티에이징 에센스. 가볍고 매끄러운 발림과 충분한 보습력은 남성 피부를 위한 특별한 차별이다. 140ml 7만3000원대

본윤유액

정양단과 감초 · 인삼 추출물이 강력한 항산화 효능과 피부 보습 효과를 선보여 남성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외부 자극에 의한 피부 손상을 케어하는 고보습 안티에이징 유액. 피부 장벽 구성에 필수 지질인 세라마이드와 유사한 성분을 함유해 특히 부드럽다. 90ml 5만2000원대



나무를 깎고, 흑색으로 염색하는 에보나이징 기법으로 제작한 일상을 위한 기물 '018 series'는 모두 이채영 작가.



본윤선크림

강력한 자외선 차단 효과는 물론 항산화 효능이 있는 정양단과 마치현 추출물의 진정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인티에이징 선크림. 피부 노화의 근본 원인인 뜨거운 태양 광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끈적임이 없는 최적의 사용감으로 피부에 편안하게 밀착된다.

SPF 50+ / PA++++, 50ml 4만원대

남성 피부 노화 원인들 중에서도 자외선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여성 피부보다 자외선에 더 취약하고 색소 침착이 강해 더 오래 지속되는데도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에 바르는 건 번거로워한다. 선뜻 손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면받아온 자외선 차단제지만 설화수 본윤선크림이라면 피부 관리의 필수 루틴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끈적임 없는 로션 타입의 텍스처가 부드럽게 밀착되어 편안한 피부 보호막이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뛰어난 자외선 차단 효과와 함께 남성 피부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정양단, 피부 진정 효과가 있는 마치현 추출물, 보습 효과를 발휘하는 인삼 추출물이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변화를 관리해 뜨거운 태양 광선으로부터 피부를 굳건하게 지켜준다.

본윤 라인은 향도 특별하다. 솔향, 침향, 백단향을 바탕으로 한 깊고 풍부한 우디향은 바르는 순간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여유로운 품격을 선사한다. 고귀한 정양단과 다양한 피부 보호 척방, 신비로운 우디향까지 더한 본윤 라인은 피부 회복이 더디고, 노화 속도가 빠른 남성의 피부를 위한 총체적이고 비범한 해답일 수밖에 없다. S

One of the main culprits of male skin aging is UV rays. Despite having skin that is more vulnerable to UV rays than women and higher exposure to the risk of pigmentation, men think putting sunscreen on their face is a bothersome chore. However, with Sulwhasoo UV Defense Protector, it will become an essential part of their skincare routine and they will easily get used to it. UV Defense Protector stands out because it has a matte, lotion-type texture that spreads smoothly across the skin, and creates a comfortable skin barrier. Most of all, the combination of Jeongyangdan, which boosts the self-renewing power of male skin and offers excellent UV blocking benefits, Portulaca Oleracea extract, which offers skin-soothing benefits, and Ginseng extract, which is known for its outstanding moisturizing effects, manages various changes to the skin caused by the sun's UV rays, thus keeping male skin firm and strong. Sulwhasoo Men Line also has a deep and rich woody fragrance based on the scents of Pine, Agarwood, and Sandalwood. It relaxes the mind and offers a relaxed sense of dignity immediately upon application. With its rare and precious Jeongyangdan, different skin-protecting prescriptions, and a magical, woody fragrance, it is perfect for men at the mercy of rapid aging and at risk of slower recovery. It is a holistic solution that can deliver extraordinarily resilient skin.

설화수 맨
사용 순서
Sulwhasoo Men
Skincare Routine



남성 피부는 여성에 비해 피지 분비량이 많고 모공도 커서 외부 자극에 의한 회복 속도가 더디다. 이를 해결하고 노화의 가속화를 예방하기 위해 '남성을 위한 인티에이징'을 선보이는 본윤 라인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먼저 세안 또는 면도 후 본윤에센스를 적당량 덜어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땅을 다지듯 부드럽게 눌러 흡수시킨다. 이어 본윤유액을 1~2회 펌핑해 얼굴 전체에 펴 발라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보습력을 높여준다. 외출할 때는 피부 노화의 근본 원인인 태양 광선을 막기 위해 본윤선크림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다.

내 아름다움이
자라는 장소, 책상

The place where my
beauty grows, my desk

김 애 란

본연의 아름다움은 특정 나이와 시간에 한순간 머무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깊어진다. 설화수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이고, 바람이다. 그리고 소설가 김애란이
자신과 삶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이야기도 다르지 않았다.

사진 이종근



며칠 전 제주 시내를 산책하다 낯선 공간을 봤다. 시민공원 한쪽에 푹 껴진 땅을 연둣빛 철창으로 둥글게 감싼 공간이었다. 철창 앞에는 ‘반려동물 쉼터’란 풋말과 함께 이용 수칙과 주의사항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쉼터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산책로 난간에 서서 잠시 바람을 쐬다. 철창 안, 너른 풀밭에서 주인과 함께 이리저리 뛰노는 갈색 개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다. 개의 표정도 주인의 얼굴도 모두 밝아 보였다. 나는 제주시의 과감한 행정에 감탄하며 ‘시내 한복판에 이런 장소를 만들다니 참 대범한 상상력이고, 바람직한 낭비이다’. ‘요즘 같은 때 이렇게 큰 쉼터를 홀로 마음껏 누비다니 저 강아지도 참 복 받았네’ 생각했다. 그러다 이내 ‘이런 풍경을 일상적으로 두 눈에 담을 수 있는 나도 실은 복 받은 거라 고쳐 생각했다. 내가 접한 건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한 지역 사회의 세련된 합의 그리고 문화적 공기였으니까. 나는 제주 시민도 아니고 반려동물 또한 키우지 않지만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누군가 지극히 동물을 아끼는 마음을, 한겨울 귀찮음과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나와 반려견의 행복을 도모하는 모습을, 그리하여 두 존재 다 기쁘게 뛰노는 장면을 목격하는 게 좋았다. 거의 모든 땅을 똑같은 기준으로 값 매기는 서울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었기 때문이다.

제주로 출장 간 며칠 동안 종종 그 공원에 들렀다. 그러곤 산책로 난간에 기대 반려동물 쉼터를 자주 내려다봤다. 주위 인구밀도가 높지 않아 그런지 쉼터 안은 대체로 한적했다. 물론 가끔은 붐볐지만 그래봤자 평소 한두 마리인 개가 네다섯 마리로 늘어난 정도였다. 그곳에서 나는 크고 너른 공간이 주는 평화를 매번 실감했다. 그러곤 그 느낌이 웬지 낯설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런데 어디였더라? 내가 이런 고요와 안정감을 느꼈던 곳은? 뜻밖에 답은 쉽게 나왔다.

책상.

내 방 가운데 자리한 원목 책상 앞에 앉았을 때.

꼭 개인적인 공간이 아니어도 책상 혹은 그 비슷한 게 놓인 자리면 어디라도 좋았다. 어떤 장소든 노트북이나 책을 옮겨둘 만한 몇 뼘의 평편한 공간만 있으면 족했다. 어느 카페의 호젓하고 넓은 책상에 앉아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도, 독서실의 좁은 탁자에 옹색한 자세로 앉아 문장을 고치는 일도 내겐 모두 소중했으니까. 물론 마감 때면 책상 앞에 앉기보다 그 위에 눕고 싶은 마음이 더 크지만. 매번 새 도화지 반듯 ‘깨끗한 평면’ 앞에 앉을 때면 ‘뭔가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곤 했다. 특히 주위에 아무 물건도 옮겨두지 않은 빈 책상을 볼 때, 공간이 시원하게 낭비된 자리와 마주할 때 그랬다. 그리고 보면 상상력은 결핍을 통해서도 나오지만 낭비를 통해 촉발되기도 하는 듯했다. 마치

A few days ago, while walking around the city of Jeju, I came across an unfamiliar space. It was a space surrounded by light-green iron fence on the side of a public park. In front of the iron fence was a signpost saying, “Pet-friendly Park,” along with park rules and precautions for visitors. I stood on the edge of a trail overlooking the park, and took a moment to enjoy the breeze. Inside the iron fence, I noticed a brown dog jumping around and playing with its owner on the wide-open grassy lawn. Both the look on the dog’s face and its owner’s face appeared to be glowing. I admired the bold administration of Jeju City, and thought to myself, ‘It took some great imagination to create a place like this in the middle of the city. But it’s good to “waste” resources like this. It’s fantastic how that dog gets to run around as much as he wants in this large park.’ In these days, He’s one lucky dog.’ Then, I thought, ‘In fact, I’m pretty lucky to be seeing something like this every day as well.’ What I saw on that day was not just a dog playing in the park. It was the product of an agreement among the stakeholders in a community, and the product of a culture. I do not live in Jeju, nor do I have a pet. Even so, I stood there watching someone who deeply cared about his pet, being happy with his dog despite the cold weather and trouble of playing outside in the middle of winter. Both the dog and its owner were running around with joy. This is a rare sight in Seoul, where almost all parcels of land are priced based on the same criteria—market value. There, I basked in the peace that the large and wide-open space seemed to give me upon every visit. Then, I realized that the feeling the park gave me was somehow not all that unfamiliar. But where had I felt that feeling before? Where did I feel this tranquility and stability? The answer, surprisingly, came easily.

My desk.

When I sit in front of a wooden desk in the middle of my room...

Any place with a desk or something similar to a desk made me feel good. It did not necessarily matter whether I was in a private space, or out in the open. Wherever I was, all I needed was an inch of flat space to put on my laptop or a book. To me, expressing my imagination while sitting in front of a quiet and spacious desk in a café, or correcting sentences while sitting on a narrow table inside a reading room were equally important. Whenever I sit in front of something clean and flat,



제주의 반려동물 쉼터처럼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런 정신의 빈 공간이, 우리 영혼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 ‘쉼터’가 ‘놀이터’이기만 한 게 아니라 ‘일터’이고 ‘전쟁터’라면 그땐 어찌하나? 예로부터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작가들은 가능한 한 책상 주위에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갖다 두곤 했다. 아마 미술가나 음악가도 그럴 거다. ‘일단 앉으면 뭔가 만들어내야 하는’, ‘어떻게든 끝내야만 하는’ 자리로 가기까지 온갖 핑계와 꾸물거림을 달래줄 만한 물건들이 필요할 테니까. 실제로 많은 창작자들은 스스로를 늘 ‘달래가며’ 일한다. 자신에게 맛있는 걸 사준다든지, 좋은 음악을 들려준다든지 혹은 ‘이번 회까지만 보고 정말 시작하는 거야.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라고 불과 며칠 전 스스로에게 한 거짓말을 반복하며, 틀림없이 실망할 초고를 쓰기 위해 변함없이 책상에 앉는다. 그러곤 또 얼마 안 가 ‘그런데 좀 출출한 것 같아.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 뭐 좀 먹고 시작할까?’ 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일도 잦지만 말이다. 나 역시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아 책상 한쪽에 무용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자주 옮겨둔다. 이름 모를 붉은 씨앗이 담긴 투명한 큐브라든가 작

I often felt like ‘starting something.’ This was especially the case when I was looking at an empty desk with no objects placed around it, or coming face-to-face with an overly spacious place. Come to think of it, my imagination seems to come from a sense of insufficiency, but it also seems to be triggered by a sense of waste. But what if the park was not just a “park,” but also a “workplace” and a “battlefield”? Writers who have been fully aware of this scenario since the ancient times used to keep their favorite objects around their desks as much as they could. The same might be so for artists or musicians. Writers, artists, and musicians alike need all sorts of excuses and procrastination to bring us to the point of ‘creating something once we actually sit down,’ or ‘finishing the work no matter what.’ In fact, many creators always ‘ap-pease’ themselves as they work. Eating something delicious, playing good music, or saying, “Just this one last episode, and I’ll start working. This really is the last episode,” are all part of the self-bargaining process that recurs day after day. Then, we sit down in front of a desk to write a first



김애란 작가는 자신의 다정한 말투만큼이나 작품 속 인물들의 마음을 다감하게 헤아립니다. 소설집 〈달려라 아버지〉, 〈침이 고인다〉, 〈바깥은 여름〉과 장편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 등 모든 작품들이 그려하죠. 줄곧 섬세하고 따스한 작품을 선보이며 나이 마흔이 넘으면서 “마흔이야말로 소설 쓰기 좋은 나이”라고 말했던 김애란 작가에게는 자음생에센스와 자음생크림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은 접시에 담은 여러 개의 뭉당연필, 이국에서 온 엽서, 향초, 연필깎이, 연필깍지,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받은 단순하고 우아한 사슴 조각, 가죽 책갈피… 대신 그 소품들은 모두 책상 윤편에 보기 좋게 몰아두고, 책상 자체는 가능한 한 깨끗하게 비워두려 애쓴다. 그 빈 공간이 내게 시각적 상쾌함과 정신적쾌적함을 주기 때문이다.

내게 크고 넓은 책상이 생긴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전까지 나는 주로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글을 썼고, 원룸의 내 책상은 주로 사방에 넘쳐나는 짐을 쌓아두는 용도로 쓰였다. 그 뒤 몇 권의 책을 내고 서른 넘어 비교적 안정적인 공간이 주어졌을 때 나는 책상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던 책상. 인체공학적으로도 편하게 만들어진 데다 심미적으로도 거슬리지 않는 책상을 비로소 갖게 되었다. 그라곤 얼마나 뿌듯하고 기뻤는지. 웬지 그 앞에만 앉으면 글이 뚝딱 써질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물론 그 뒤에도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말이다. 아무튼 집에 넓고 큰 책상이 있으면 좋은 점이 또 있는데, ‘왜 어태 원고 시작도 않고 땀짓 중이냐?’, ‘이러다 또 지옥 보려고 그러냐?’는 배우자의 비난과 감시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는 거다. 방문을 닫고 뭔가 열심히 쓰는 척하다 졸음이 쏟아지면 바로 책상에서 엎드릴 수 있으니까. 말은 이렇게 해도, 이런 변명과 자책, 뒷청과 미루기의 숱한 밤을 지나 우연히 ‘진실한 문장’과 만났을 때 기쁨은 뭐라 설명할 수가 없다. 길을 헤매다 잘못 연문 앞에서 뜻밖의 중요한 풍경을 본 기분이랄까? 작가 또한 여느 창작자처럼 ‘예술가 자아’와 ‘생활인 자아’가 있고, 대체로 두 가지를 적절히 섞어 살아가지만, 글을 쓸 때 이따금 나는 ‘예술’과도 상관없고 ‘생활’과도 상관없는 진실한 상태, 순수한 상태로 고양된다.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아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고양, 주체가 된 느낌과 마주한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 순간 때문에 많은 창작자들이 시간 대비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작업에 그토록 몰두하는지도 모른다.

참고로 내 어머니는 살면서 한 번도 책상을 가지지 못했다. 배움을 좋아했지만 그 시대 많은 여성분들이 그렇듯 가족의 지지와 허락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평생 국수를 삶고, 생선 배를 가르며 세 딸을 키워냈다. 그라곤 내게 재산이나 지식 대신 많은 이야기와 사랑을 물려주셨다. 그렇게 어머니의 노동에 빛진 내가, 어머니가 마련해준 ‘현재’에 앉아 이 글을 쓴다. 내 지식과 생각이, 마음과 눈빛이, 이야기와 꿈이 자라는 네모난 자리에서. 나의 영토이자 쉼터, 일터이자 놀이터에서. 내가 가진 가장 큰 땅, 몇 땜짜리 이 책상에서 오늘도 나의 아름다움을 키운다. 아름다움을 짓는다. S

draft, which, invariably, will disappoint readers. But after a while, we start to think, ‘But I think I’m a little hungry. Should I get something to eat before I really start writing?’ It often leads us to just step away from the desk. I understand this as well as anyone. So, I often keep useless but beautiful things in one corner of my desk. Actually, it has not been long since I had a large desk. Before, I did most of my writing in a library or a café, and the desk in my studio apartment was mainly used to store my belongings that were piling up everywhere. But then, once I published a few books, and was given a relatively secure place to write in my 30s, I finally got a desk that was more than capable enough of functioning as a desk, one that is ergonomically designed, and aesthetically pleasing at the same time. You cannot imagine how proud and happy I was. For some reason, I had this illusion that words would start writing themselves magically if I sat down at my desk. Of course, things were not as simple as I thought. Though I am saying like this, I cannot put into words the joy when I accidentally write a “true sentence” by sheer chance, after spending nights on end blaming things, procrastinating, and putting things off. Like other creators, a writer also has an “artistic self” and a “non-artistic self.” Usually, both coexist in appropriate harmony. When I write, sometimes I get stimulated to a state of sincerity and innocence that has nothing to do with “art” or “life.” Even if it does not make me great, I embrace that feeling of being uplifted, and the feeling that I am the subject or the protagonist of something. And maybe because of moments like these, many creators get so immersed in work that does not seem an economic way of spending time. Surprisingly, my mother has never owned a desk in her life. She loved learning growing up, but like many women of that era, my mother did not get the support and permission she needs from her family. So, she cooked noodles and gutted fish all her life to raise three daughters. Then, instead of money or knowledge, she passed on plenty of stories and love. My “today” was made possible because of my mother’s work. I am here, able to write in the “today” my mother gave me. My desk is a rectangular sanctum where my knowledge and thoughts, heart and eyes, and stories and dreams grow. It is my domain, my park, my workplace, and my playground. I nurture my beautiful dreams today in front of the largest patch of land I own, within the four corners of this desk. This is where I create my definition of beauty.



세상의 모든 것엔 시점視點이 있다

Lee Ji Sook

이 지 숙 작가

그의 독특함은 19세기 민화인 '책가도冊架圖'의 형식을 빌려 21세기에 자신이 읽었던 책을 함께 읽자고 권하는 방식에 있다. 한 인간으로서 책을 통해 길을 찾았던 놀라운 경험을 대중과 공유하기 위해서다. 그가 자신의 그림 속 자개장이나 손수 키운 꽃 모두에게 주연을 맡기는 것도 책을 통한 깨달음 때문이란다. 3차원과 2차원의 경계에 선 부조는 그의 목소리가 담긴, 벽에 걸린 스피커인지 모르겠다.

글 최태원 사진 한수정(Day40 스튜디오), 그루비주얼

표지 작품에 대해 설명해주시는 것으로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장과 서책을 중심 소재로 다양한 문방구와 기물 등을 함께 그린 정물화인 책가도는 대표적인 민화의 한 형태죠. 이 책가도에 붓꽃을 더한 작품이 이번 표지작입니다. 그간 제 그림엔 작업 기간에 직접 씨를 받아 키운 모란이나 매화를 그려 넣었는데, 지난해부터 꽃가지를 그리고 싶어 택한 것이 붓꽃이었고, '좋은 소식'이란 꽃말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한 거죠. 거기에 어머니를 연상시키는 자개장과 리처드 세넷(Richard Sennett) 교수의 <장인>이란 책도 그려 넣었어요. 그 이유는 이 책의 '현대 문명이 잃어버린 생각하는 순'이란 부제처럼 우리가 노동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미술 작품으로 국한해 생각해봐도, 요즘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하거나 재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어떤 계기로 '민화'를 차용하게 되었나요? 서른 살이 되던 무렵 '공예가들의 책 읽는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노동의 시간이 많은 공예가들

Let's start the interview with a description of your cover work. Typically, these Scholar's Accoutrements paintings use bookshelves and books as primary motifs. This latest piece of cover work is a Scholar's Accoutrements relief with iris flowers. In the past, I painted peonies and plum blossoms, which I had planted and grown while working on a particular piece. However, last year, I chose to grow iris flowers because I wanted to paint their stems. Also, since the iris symbolizes a "good news," I thought it was the perfect time to grow iris flowers because of the COVID-19 pandemic. Along with my iris flowers, I also included a chest of drawers laden with mother-of-pearl decorations, which reminded me of my mother, and a book called "Craftsman" written by Professor Richard Sennett.

What motivated you to borrow techniques from traditional "Minhwa" painting? When I was around 30 years old, I started



도자 공예를 전공했지만 회화와 드로잉을 좋아하는 취향을 접목해 흙으로 빚은 테라코타 위에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을 여러 겹 더하는 독특한 방식을 완성했다.

이 지적 허기를 달래기 위해 시작한 독서 모임인데, 한 10년을 꾸준히 해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만들 생각을 하던 차에 알랭 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이란 책을 읽게 되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10년 독서에도 풀리지 않던 퍼즐이 그 순간 맞춰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서 나도 누군가에게 책을 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로 인해 민화인 책가도에 주목하게 된 겁니다.

테라코타에 입힌 아크릴 색감은 전통 오방색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회화와 달리 초벌한 흙에 색을 입히고 가마의 고온을 거친 뒤 나오는 도자의 색감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입니다. 특히 테라코타 위에 세밀한 문양을 그리는 저는 다양한 시도 끝에 마땅한 재료로 아크릴 물감을 선택했고, 물을 상당히 많이 섞어 수채화처럼 쓰고 있어요. 만약 제 작

a little book club called the “Reading Craftsman’s Book Club.” It went on for about a decade, but, even so, it did not satisfy me completely. I was about to pull the plug, and that was when I came across a book called “The Art of Travel” written by Alain de Botton. To my surprise, it worked. I found what I was so desperately searching for from all those book club meetings over the past decade. It made me want to really recommend books to other people, and that was when the Scholar’s Accoutrements paintings caught my eye.

You use acrylic colors applied to terracotta. Is that related to the five traditional Korean colors? I wanted to draw intricate patterns on terracotta. So, after a number of experiments, I chose acrylic paint as the

품에서 오방색의 느낌을 받으셨다면, 그건 제 의도가 아니라 제게 내재된 한국인의 DNA 때문이 아닐까요?

초고도 과학 시대에, 구시대 서민 문화와 결합을 시도하신 이유는요?

도공이 규칙에 얹매이지 않고 그림을 그려 넣은 분청사기나 무명씨들이 그린 민화가 현대인들의 미감에 어필하는 것은 자유로움 때문이 아닐까요? 민화에는 흥미로운 요소들이 많지만 특히 저는 민화의 ‘다시 점 구도’에 끌렸어요. 고백하건대 이전의 저는 제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마흔 살을 넘기면서 그 누구도, 또 어떤 사물도 세상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런 깨달음이 민화의 다시 점 구도와 결합돼, 제 작품 속 앞뒤의 사물이 동등하게 존재하는 배경이 된 겁니다.

best option. I mix it with plenty of water to make the paint look like watercolor. If my work reminds you of the five traditional Korean colors, it was not something I was intentionally trying to do. Rather, it might be my innate DNA as a Korean that is shining through my work.

We live in an age of ultra-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Is there a reason why you chose to incorporate a form of traditional culture that belonged primarily to the working class throughout history? I think it is because of the freedom represented in the art pieces that modest Buncheong Sagi celadons with irregular patterns and illustrations or Minhwa paintings done by unknown artists appeal well to the aesthetic taste of people today. Minhwa folk

'부귀영화'란 작품 속에 밀란 쿠데라의 소설 <불멸>에 대한 감상을 넣었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감상이었는지요? 모든 인간은 다양한 형태의 불멸을 꿈꾸지만 과연 현실 속에서 불멸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잠시 허락되는 부귀영화는 있을 수 있겠으나 불멸하는 부귀영화나 명예, 사랑은… 글쎄요. 우리 모두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을 갈망하느라 일회성인 삶을 소진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주로 부조로 작품을 만드시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부피가 큰 작품들을 보관하기가 힘들어서 '나는 벽으로 가야겠다'는 선택이 부조 작업을 주로하게 된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였죠. 한번은 2차원적 평면성을 강조한 제 부조를 다시 3차원 입체로 끌어내 전시대에 세워보자는 제안을 받아 작업을 하기도 했는데, 아주 흥미로운 경험이었어요. 책가도 부조가 제 시그니처가 되었지만, 언젠간 그런 3차원 작업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습니다.

첫 개인전을 연 1996년 이후 작가로서 어떤 변화를 겪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작가로서 제가 보낸 30대까지는 우울한 시간의 연속이었어요. 방향성도 자신감도 결여된 상태였으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40대에 들어서면서 스스로 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었고, 손에 든 책들도 제게 말을 걸어 왔고, 작업을 통해 저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확신도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도 태도도 탄탄해졌는데, 건강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아쉬움도 어느새 곁에 와 있네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지난해 갤러리쿱 공모 작가로 강원도 풍경을 담은 작품을 내놓은 적이 있어요. 자의든 타의든 책가도에 갇혀 있던 제게는 활력이 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풍경 작업을 좀 더 해보려고 해요. 또 여러 작품을 한데 모았을 때 그 공간이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도 진행해볼 생각입니다. S

paintings have plenty of intriguing elements. But I was drawn to the "multi-view composition" of Minhwa paintings.

You mentioned that you put your impressions of Milan Kundera's novel, "Immortality," in your work, titled "Wealth and Honor." What specific impression were you inspired by? All humans dream of various forms of immortality. But is immortality a realistic dream to have? We might get to enjoy some fleeting wealth and honor. But everlasting wealth, honor, status, and love? I am not sure. I also think that most of us waste our lives, which we only get to live once, chasing an illusion that does not exist.

Most of your work is in the form of reliefs. Is there a particular reason? It was a very practical decision. I decided to work on reliefs because I thought full sculptures were so difficult to store. I thought, "I need to create things I can hang on walls." Once, I was offered to turn some of my two-dimensional works, which are characteristically flat, into more three-dimensional pieces, and have them stand on their own on a platform. That was a really interesting experience.

In what ways have you changed as an artist since hosting your very first solo exhibition back in 1996? As an artist, I went through some depressing moments until the end of my 30s. I lacked direction and confidence. As I said, I became more confident, and started to believe I could really make it when I turned 40. The books I was reading started to speak to me, and I believed I could create my own voice with my work. My thought and attitude have become mature, but I feel sad about the fact that I'm already at a point in my life where I am not as young and spry as I used to be.

What are you planning next? Last year, as a contributor to the Gallery Coop, I showcased a piece of my interpretation of the landscape in Gangwon-do. It was a great change of pace for me. It gave me a chance to step away from Scholar's Accoutrements paintings dramatically, by choice and through external forces to a certain extent that I was dealing with for a while. So, in the near term, I am going to work with landscapes more.



작가 자신이 읽은 후 권하고 싶은 책, 직접 키운 식물과 애용하는 화장품 등 손의은 물건들을 옛 책거리 그림의 형식으로 표현했다.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과 잔잔한 평안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담은 풍경들이다.

아득한 신라, 새로운 아름다움

Gyeongju National Museum

국립경주박물관

천년 고도 경주에 머물 땐 유독 더 시간의 존재, 흐름을 의식하게 된다. 거대한 고분의 따스한 곡선과 그 푸르른 빛이 얼마나 아득한 시간을 거쳐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 생각하면, 지금 이 찰나의 순간이 새삼 귀하고 소중하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이유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신라비로 국보 제38호인 '포항 중성리 신라비'가 마치 현대미술처럼 모던한 배경에 단독으로 놓여 2세기 관람객과 몰입도 높은 소통을 이룬다.

국립경주박물관은 경주라는 지역 특성에 걸맞은 옛 신라의 문화유산을 심도 있게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립 박물관이다. 1910년 경주 지역 유지들이 신라 고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모임인 '신라회'에서 비롯하여, 1915년 객사였던 현재의 경주경찰서 화랑관 뒤 건물에 소박하게 마련한 진열관이 국립경주박물관의 전신이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정치적 격변기를 거쳐 1975년부터 현재의 반월성 동쪽 인왕동에 자리 잡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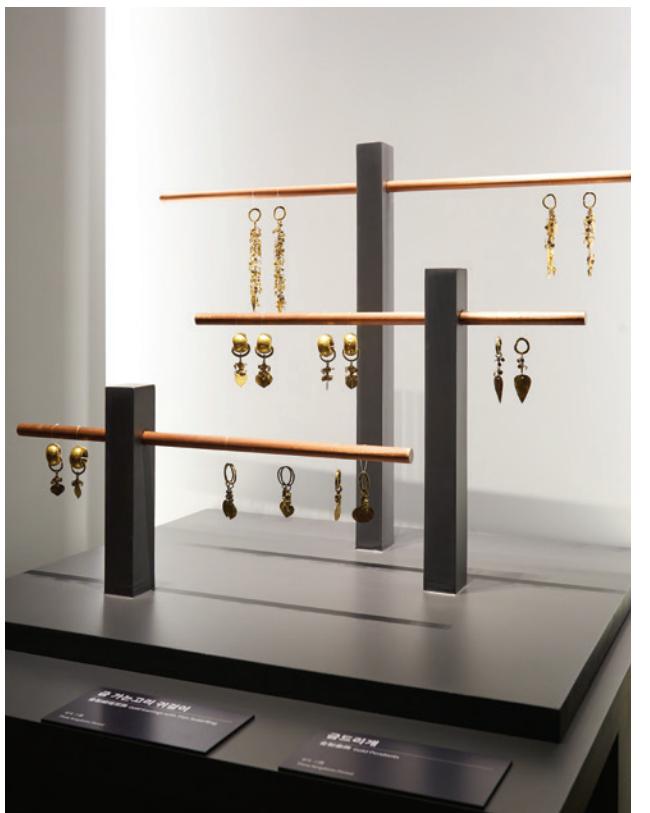
지난해 말 국립경주박물관은 신라 천년의 역사를 다루는 '신라역사관'을 새롭게 꾸며 선보였다. 그 곳에 들어서면 먼저 우아하고 격조 높은 분위기의 로비, 중앙홀과 마주한다. 각 전시실을 연결하는 중앙홀은 유물의 감상 과정을 함께하는 동시에 휴식처로 기능한다. 한옥과 신라 토기를 모티브로 했지만, 그 간결하고 세련된 감성이 무척 현대적으로 다가온다. 나무와 돌 등 자연 소재를 정갈하게 배열해 연출한 통일성은 어느 호텔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게 한다. 전시실로 들어가기 직전, 박물관의 정원과 그 너머 산이 액자처럼 아름답게 담겨 있는 통창에서 저절로 발걸음이 멈추었다. 고즈넉한 풍경과 어우러진 옛 유물의 자연스러운 배치 역시 절묘하다.

이번 리뉴얼에서 전시 공간은 미로처럼 다소 답답하고 복잡한 예전의 느낌에서 열린 구조로 개선하는 데 힘을 실었다. 그래서일까? 언젠가 수학여행 때 와보았던 박물관의 어두컴컴하고 위압적인 인상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다. 리뉴얼 후 진열장의 유리는 모두 가시광선 투과율이 99퍼센트에 달하는 전면 저반사 유리를 채택하여 빛에 의한 어른거림이나 반사 현상이 거의 없다. 조명 역시 박물관 전시에 최적화된 최신 LED로 전면 교체해 감상의 몰입도를 한층 높였다. 4미터에 이르는 대형 유리 진열장은 개방감을 극대화하여 수많은 유물이 눈앞에서 더욱 생생하게 살아난다. 특히 진열

At the end of last year, Gyeongju National Museum unveiled its new Silla History Gallery, which focuses on the thousand-year history of Silla. Renovations for this remodeling project started back in 2018. Upon entering the Silla History Gallery, the first thing that catches the eye is the elegant and classy central hall. The central hall that connects each exhibition gallery serves as a rest stop where people can take some time to reflect and appreciate the full significance of the artifacts housed inside the Museum. Although inspired by a more traditional Hanok architectural style and Silla earthenware, the simple and refined ambiance exudes a very modern look and feel. The consistency, created by the neatly arranged natural materials, such as wood and stones, makes the entire venue feel like a high-end hotel.

With this latest remodeling project, the Museum focused on improving the layout of the building, which had felt old and somewhat complicated like a maze, to a more open and airy structure. Now, the glass protecting the exhibits is a low-reflective glass with a visible light transmittance rate of 99%, which means that the glass produces almost no flicker or reflection caused by light. The Museum also replaced the entire lighting system with the latest LED light fixtures optimized for museum exhibitions, thus creating an environment better suited for patrons to completely immerse themselves in the exhibitions. In particular, the large, 4-meter glass showcase maximizes the sense of openness that helps bring to life the countless artifacts exhibited at the Museum.

Meanwhile, relics, such as tombstones and stone statues, arranged in various locations across the



유물의 특성에 따라 감각적으로 배치하고, 진열장 없이 노출한 전시는 기존 박물관 전시 방식의 틀을 깼다.
덕분에 유물이 아닌 작품으로 다가와 역사적 가치를 넘어 미학적 감상까지 가능하다.

장을 벗어나 전시장 곳곳에 배열된 비석, 석상 등의 유물들은 시간의 경계를 넘어 아스라한 역사의 기척을 그 숨결로 전하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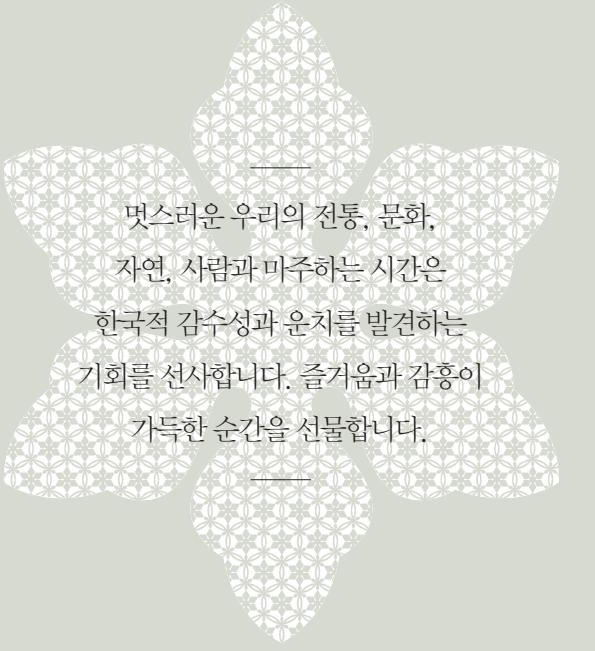
신라의 중앙 집권화, 삼국 통일과 통일신라 문화를 다루었던 기존 신라역사관 3, 4실은 통일성 있는 정보 전달을 위해 3실로 통합하였다. 3실의 전반부에는 신라가 왕권을 강화하고 주변국을 복속하면서 통일을 이루기까지의 드라마틱한 역사가 짜임새 있게 펼쳐진다. 이후 후반부에는 왕권이 강화되면서 더욱 발전을 이루는 통일신라의 문화를 소개하는데, 신라 궁성과 복식 등 신라 시대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시절의 문화들이 세련된 디스플레이와 함께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특히 신라인의 품위와 아름다움에 격을 더했을 화려한 장신구는 기나긴 세월을 지나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멋지게 보인다. 같은 디자인의 제품을 어딘가에서 판매한다면, 당장 위시 리스트에 넣고 싶을 정도다. 또한 ‘신라의 미소’라 잘 알려진 얼굴 무늬 수막새가 이렇게 작고 귀여우며 신비한 줄도 이제야 알았다. 이러한 깨달음이 더욱 새삼스러운 이유는, 그것들이 놓이고 진열된 방식에 있을 터다. 그저 ‘유물’이라는 타이틀 안에서 번호로 매겨진 자료가 아닌, 한때 누군가의 깊은 사랑과 손길을 받았을 존재로서 거기에 있다는 것. 하나의 상징이자 오브제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발견한 신라의 아름다움은, 그 의미를 더욱 잘 표현하기 위해 치열했던 많은 이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새로움일지도 모르겠다. 옛것과 지금의 감각이 대화를 하고 난 찬란한 결과라 할까. 5

Museum (outside the galleries) transport visitors back in time and take them on a journey through Silla's long and illustrious history.

The first half of Hall no. 3 tells the dramatic history of how Silla's monarchs consolidated power, and how the kingdom conquered the neighboring countries to achieve unification in a well-organized and structured manner. The second half of the Hall focuses on the culture of Unified Silla, which was further developed by the increasing consolidation of power to the monarchy. Cultures of the Silla era, such as Silla's palaces and costumes, capture the attention of visitors with the sophisticated displays. The exceptionally striking splendid ornaments, which were adorned to add the dignity and beauty of Silla's nobility in the past, still look beautiful after more than a thousand years. In my most recent visit to the Museum, I noticed for the very first time how petite, cute, and mysterious the convex tiles with little facial expressions pressed into them were. The faces pressed into these tiles are known as the “Smile of Silla”. The main reason why the newly renovated exhibitions look so refreshing is the way they are placed and exhibited. Now, the artifacts in the Museum look more than just numbered items in the Museum's catalog. They are presented to patrons in such a way that they would have been used and loved by their owners. This way, the artifacts become symbols and an objet d'art. In my recent visit to the Gyeongju National Museum, I have discovered and learned that the beauty of Silla may be the result of the Museum's well-thought-out efforts to showcase each item's meaning and significance better than before. I would like to believe that this brilliant renovation is the result of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old and the new.

누리



멋스러운 우리의 전통, 문화,
자연, 사람과 마주하는 시간은
한국적 감수성과 운치를 발견하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즐거움과 감동이
가득한 순간을 선물합니다.

이날치가 열어젖힌 새로운 세상이 내려온다
Leenalchi takes us to a whole new world

이 날 치

예측하지 못한 새로움에 대한민국이 들썩이는 요즘이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수궁가'의 한 대목을 자연스럽게 부르는 시대가 또 있었던가?
고수의 북소리 대신 판소리 사설에 입혀진 드럼과 베이스 기타의 전자음. 기존의 문법을 벗어난 밴드 이날치의 음악도 그렇거니와 그들,
무대 위에 선 다양한 그들 자체로 짜릿하다. 다양한 연령, 미혼과 기혼, 출산 여성이 한 무대의 주인공인 시대 또한 만나본 적 없으니.

글 이재영 사진 한수정(Day40 스튜디오)





사람들은 이날치를 보면서 일종의 해방감을 느낀다. 멜로디를 구상할 때 익숙한 걸 전부 빼는 작업 방식, 화려하지 않지만 묵직하게 반쳐주는 베이스와 드럼만으로 이루어진 심플한 악기 구성, 랩처럼 빠르게 쏟아지는 판소리 창법, 모두 기존에 없던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음악이 이렇게 달라도 괜찮다고 말해준다. 그뿐인가, 서른을 앞둔 20대 여성과 30대의 기혼 여성, 30대의 출산 여성 이 함께 노래하는 무대가 변방이 아닌 중심에서 펼쳐진다는 사실은 벽차게 위로가 된다. 단단하게 가득 찬 모두가 아름다운 세계. 노래를 들을 뿐인데 삶의 지평이 넓어진다.

설화수가 지향하는 ‘시간의 지혜로 빛나는 아름다움’을 무대 위에 펼쳐놓는 이날치의 권송희, 이나래, 신유진. 소리꾼 넷과 연주자 셋으로 이뤄진 밴드 이날치의 여성 멤버 셋은 판소리를 전공한 소리꾼으로 모두 보컬을 맡고 있다. 지금은 무대 위에서 노래로 위안을 주고 있지만 이날치를 시작하기 전에는 결혼과 출산 등 여성 예술가로서의 고민이 깊었다. “이날치를 시작할 무렵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만두고 싶지 않았어요. 다행히 팀에서 배려해줘서 아이 낳기 직전까지 녹음을 하고 출산 후 빨리 복귀했죠. 처음엔 혼란스럽고 아이 엄마로 무대에 서는 게 가능할까, 엄마라는 이미지가 예술가로서 괜찮을까 했는데 오히려 시야가 넓어졌다고 할까요? 세계관이 더 넓게 열렸어요.” 예술가에게 아이를 낳고 기우는 경험은 굉장히 큰 선물이라는 걸 알았다는 권송희의 말에 이나래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다. “얼마 전에 결혼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출산에 대해 생각하게 됐는데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되는지, 내 생각만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긴 해요.” 모두 이해할 거라며 걱정

When people see Leenalchi, they feel a certain sense of liberation. Perhaps, in most cases, this is because of their music style which often omits musical elements that are typically expected in a melody. They rely on a simple arrangement of instruments, led by bass guitars and drums, and infuse rapid-fire Pansori techniques that sound similar to rap music, all of which deviate from conventional music styles. Such unconventional choice seems to be telling us that it is okay for music to sound different. Moreover, Leenalchi's lineup of female artists - one counting down to her 30th birthday soon, one married woman in her 30s, and an expectant mother who is also in her 30s - is a massive source of pride and comfort for countless onlookers. As a group, Leenalchi feels solid and full, performing in front of a world that is beautiful all-around. Simply listening to their music broadens our horizons.

Leenalchi's Kwon Song Hee, Lee Na Rae, and Shin Yu Jin tell their beautiful story on stage in a manner that resonates with Sulwhasoo's perspective on beauty - “Timeless Wisdom, Ageless Beauty.” All three female artists of Leenalchi, which consists of four vocalists and three musicians, are known as “Soriggun,” or professional vocalists trained as Pansori vocalists. Over the past few months, they have been singing to us, delighting us with their performances on stage. But before they got together to create Leenalchi, they were female artists dealing with momentous life decisions on marriage and childbirth. “I found out that I was pregnant when we were about to start this Leenalchi project. But I didn't want to quit. Fortunately, the whole team understood my situation, and I was able to finish my recording right up until I had to

말라는 권송희와 신유진의 응원에도 이나래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배려해주니 정말 감사하죠. 지금도 다른 멤버 모두 괜찮다고는 해요. 순리대로 편하게 생각하라는데, 아직까지 여성의 출산과 일에 대한 사회적 관념이 있고, 실제로 일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좀 주눅이 들죠. 꼭 예술가가 아니라도 이 부분은 누구나 고민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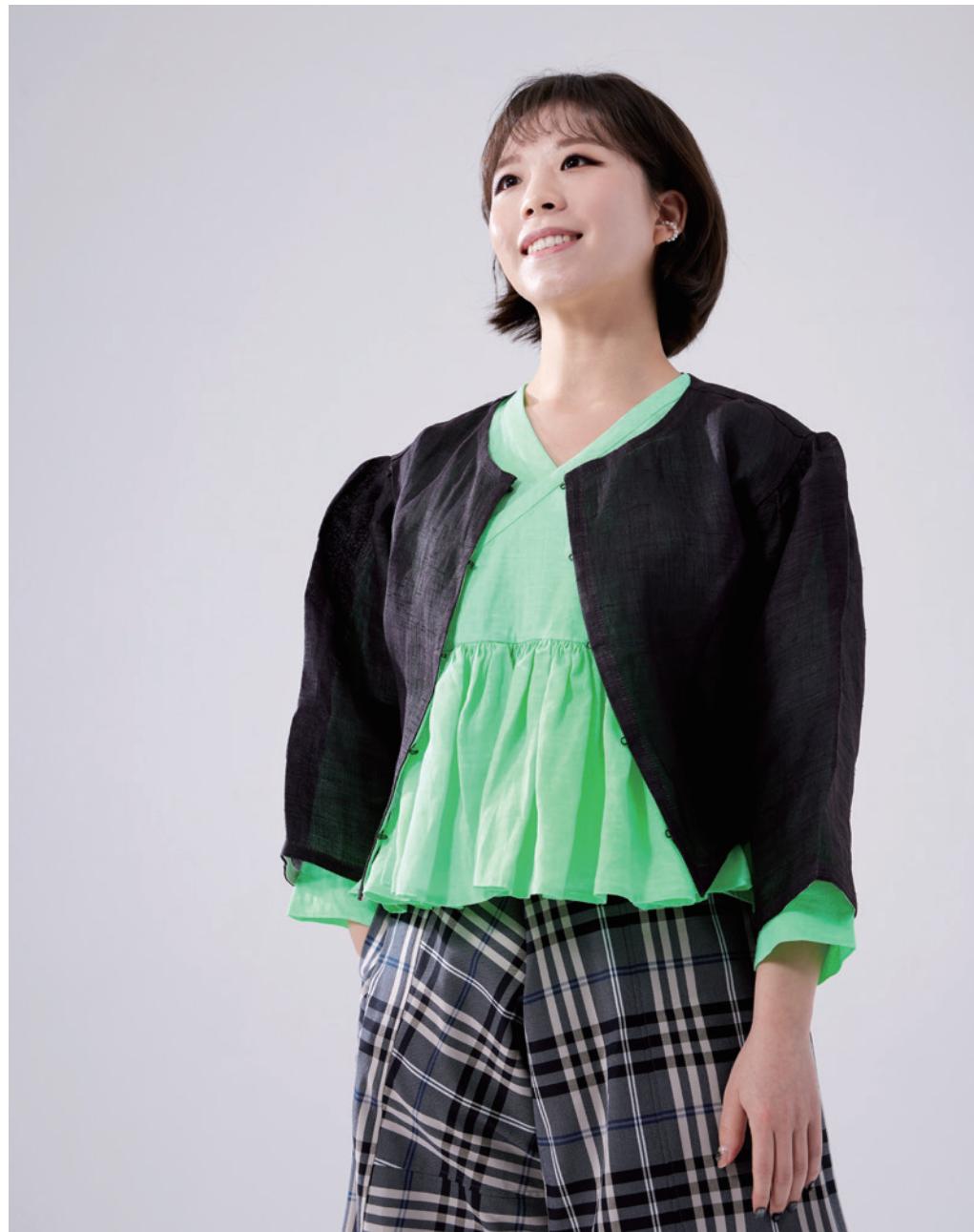
소리꾼으로서 여러 시도를 해왔던 세 사람은 이날치 활동을 통해 대중에게 판소리를 친숙하게 하는 데 성공했다. “아직 성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공의 문 앞에 서 있는 시점이죠. 이제 그 문을 어떻게 열지 연구해야죠.” 권송희의 대답에는 대중 예술가로서의 고민이 담겨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홍보 영상에 ‘범 내려온다’가 등장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호응을 얻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그들의 음악에 흥이 오르고, 팬데믹 시기에도 수많은 무대에 서고 있다. 많은 사람이 이날치의 음악을 친근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지만, 그 이상으로 일상에 좀 더 스며드는 음악을 고민 중이다. “기존 판소리 사설 ‘수궁가’로 이날치 음악의 색깔을 보여드렸으니, 새로운 주제로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의미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2집은 기존 사설이 아닌 저희가 직접 쓰거나 글 쓰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작업해볼 생각이에요. 창법은 그대로 가지고 가되 내용이 현실과 가까운 거죠. 더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이 생겨날 거라고 봐요.” 이나래가 대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설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자 신유진이 덧붙였다. “이야기를 노래로 전달하는 게 판소리의 매력이에요. 그게 정말 좋아서 판소리를 시작했거든요. 판소리의 특성을 살려서 새로운 이야기, 요즘 시대에 맞는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죠.”

head into the delivery room. Then, I came back as quickly as I possibly could. At first, I was so anxious. I wasn't sure if I could be a good mother, and perform on stage. I didn't know if being an artist would be a good profession as being a mother. But now, I feel like I have a broader perspective on things. My world view is a lot wider than before.”

Over the years, Kwon, Lee, and Shin have challenged a number of different conventions as Soriggun vocalists. With their work as part of the Leenalchi group, they have found a formula that can bring the public much closer to Pansori music. “We still don't think we've really made it. We think we're at the doorstep of really making it. What we have to do now is to find a way to actually open the door in front of us.” Kwon's answer reflects her worries as a pop artist. Leenalchi became a global sensation when their song, “Tiger is Coming,” was featured in a promotional video released by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We were able to give people a taste of Leenalchi's music with the Pansori epic, 'Sugungga.' Now, I think it would be meaningful for us if we could tell people our own story under a new theme. For our second album, we're planning on writing and composing our own music, rather than using adaptations of traditional Pansori epics. Or we're going to get some help from other writers to produce our music. We're going to leave the singing style as is. We're just going to tell a story that is closer to what we're all going through today. We're confident it will give people a little more to relate to.”

“Tradition is like the soy essence you use to make soy sauce.” Lee, who grew up in a liberal





“전통은 씨간장이에요.” 조부모님과 이웃까지 전통 음악을 즐기는 열려 있는 환경에서 자랐다는 이 나래는 전통을 양식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공기처럼 무형의 형태로 흡수해야 한다며 ‘씨간장’이라는 비유를 들었다. “어떤 형식으로만 존재하다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누군가에 의해 살아남아야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같은 씨간장인데 집집마다 해마다 다른 맛을 내듯, 똑같은 전통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죠. 그렇게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날치에는 소리꾼이 네 명인데 표현하는 방식이 전부 달라요. 각자의 방식으로 전통을 흡수해 숨쉬게 하는 거죠. 전통을 하나로 규정하지 않았으면 해요.” 그런 면에서 이날치와 설화수는 맞닿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권송희는 “기본을 훼손하지 않고 현재의 일상에서 익숙하게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잘 찾은 거죠. 설화수나 이날치나.” 두 선배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던 신유진도 혼자 좋은 게 아닌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진짜 전통이 아닐까 한다며 말을 이었다. “고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변화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곁에 두고 손에 쥘 수 있겠죠.”

이날치는 소비되는 음악을 지향한다. 쓰이는 음악이기를 원한다. 그 목표에 닿기 위해 간히지 않고 언제나 유연하려고 한다. “이왕이면 설화수처럼 소비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음악이 유용하게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존재했으면 해요. 전통을 강조하는 특별한 음악이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받아들여지는 좋은 음악을 하는 게 목표예요.” 5

environment where her grandparents and neighbors enjoyed traditional music, used “soy essence” as a metaphor to explain that tradition and heritage should be remembered by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not only in its original form and technique, but also in intangible ways. “Every family has its own soy essence that they use to make soy sauce. They all taste different. The same goes for tradition. It’s expressed in different ways, depending on the person that carries it onward. I think that’s what legacy is about. Leenalchi has four vocalists, and all of us express and sing differently. We absorb tradition in our own ways, then we breathe life into it. I don’t want tradition to be put into one homogeneous box.” In that respect, Kwon thinks Leenalchi shares some things in common with Sulwhasoo. She says, “We try to find ways that can help us become a part of people’s everyday lives without compromising some of the more fundamental elements. That’s what Sulwhasoo and Leenalchi have in common.”

Leenalchi, as a collective, hopes to create music that can be consumed by everyone. They want to create music that can be useful. To make that dream a reality, Leenalchi is trying to be flexible and freewheeling at all times. “We wish our music can be consumed like Sulwhasoo’s products. We want our music to be purposeful and to present people’s day-to-day lives in a natural manner. Our goal isn’t about making special music that highlights tradition. We want to produce good music that is easy for people to include it as a part of their everyday lives.”

메이크업&헤어 살롱드플로리(02-511-9782) 스타일리스트 정소정 도움 주신 곳 차이김(070-4186-6605), 단하(02-6952-8383), 레인크렌(02-6213-8227), 레호(070-8836-1170), 플랫아파트먼트(070-4236-6362)

1 현대 재료로 유물에 위트를 표현한 '분홍자'는 카바 라이프x라이즈 호텔 공동 기획으로
하시사박x최경주 <DOT & BLUR> 전시작. 2 Paper-mache 소재로 만든 'Cut-out pink' 의자는
오상원 작가 by jaeryo. 3 과감한 원뿔 형태의 하늘색 'Small hole series' 조명 오브제는 신다인
작가. 4 투명한 몸체에 전선을 기득 채워 조명이 커지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Smog
Series' 단스탠드 조명은 오복기공사. 5 Laminated Glass 'Wave Table'은 STUDIO CHACHA.
6 호두나무와 바이오 플라스틱을 이용해 3D 프린팅한 'D-SOBAN'은 류종대 작가. 7 수작업으로
염색한 이크릴 사이드 테이블은 스튜디오 리포소. 8 보라색 'Pipee lexus edition', 주황색 'Pipee
vase series' 화병은 모두 이동주 작가. 9 뜨개로 만든 천을 실리콘으로 모양을 잡아 제작한
비구니는 카바 라이프x라이즈 호텔 공동 기획으로 하시사박x최경주 <DOT & BLUR> 전시작.
10 베이지색 'Small hole series' 오브제는 신다인 작가.

새로운 길에 피어난 공예의 봄날

흙, 나무, 돌 등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쓰임새 좋은 아름다운 물건을 빚어온 공예의 새로운 길. 아크릴과 3D 프린팅, 재활용 소재 등
전통에서 벗어난 신소재를 사용해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확장되고 있다. 길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고운 여정이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끌로디아) 어시턴트 황남주, 장세희





왼쪽 페이지 1 목재와 면사의 소재적 조화로움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월 오브제 'Color of strings'는 심종후 작가. 2 바이오플라스틱을 이용해 3D 프린팅 기법으로 만든 '모듈 체어', 'Yellow Stool and Table', 'Green Stool and Table', 'Yellow Stool'은 모두 류종대 작가. 3 온화하고 차분한 유리 오브제 'Sill Object Series'는 서지혜 작가 by CAVA LIFE.

오른쪽 페이지 1 돌의 형상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하고 아크릴과 나무 소재를 사용한 커피 테이블과 사이드 테이블은 모두 소미니 스튜디오. 2 따듯한 색감에 손자국을 남겨 자연을 닮게 만든 텍스처의 화병은 박나혜 작가. 3 책거리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사물놀이 조각보'는 소소영.



언제나 시대의 첨단을 걷다

인류와 문명의 역사는 재료의 역사와 다름없다.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재료와 소재를 발견하고 사용하면서 시대마다 새로운 첨단 소재가 출현해 공예가 이어졌다. 수천 년 전 청동부터 금속 공예, 조선의 방짜 유기도 각 시대에는 신소재였으며 한지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소재에 대한 탐구와 탐미를 통해 우리의 공예는 언제나 첨단을 향해 있고, 여전히 늘 새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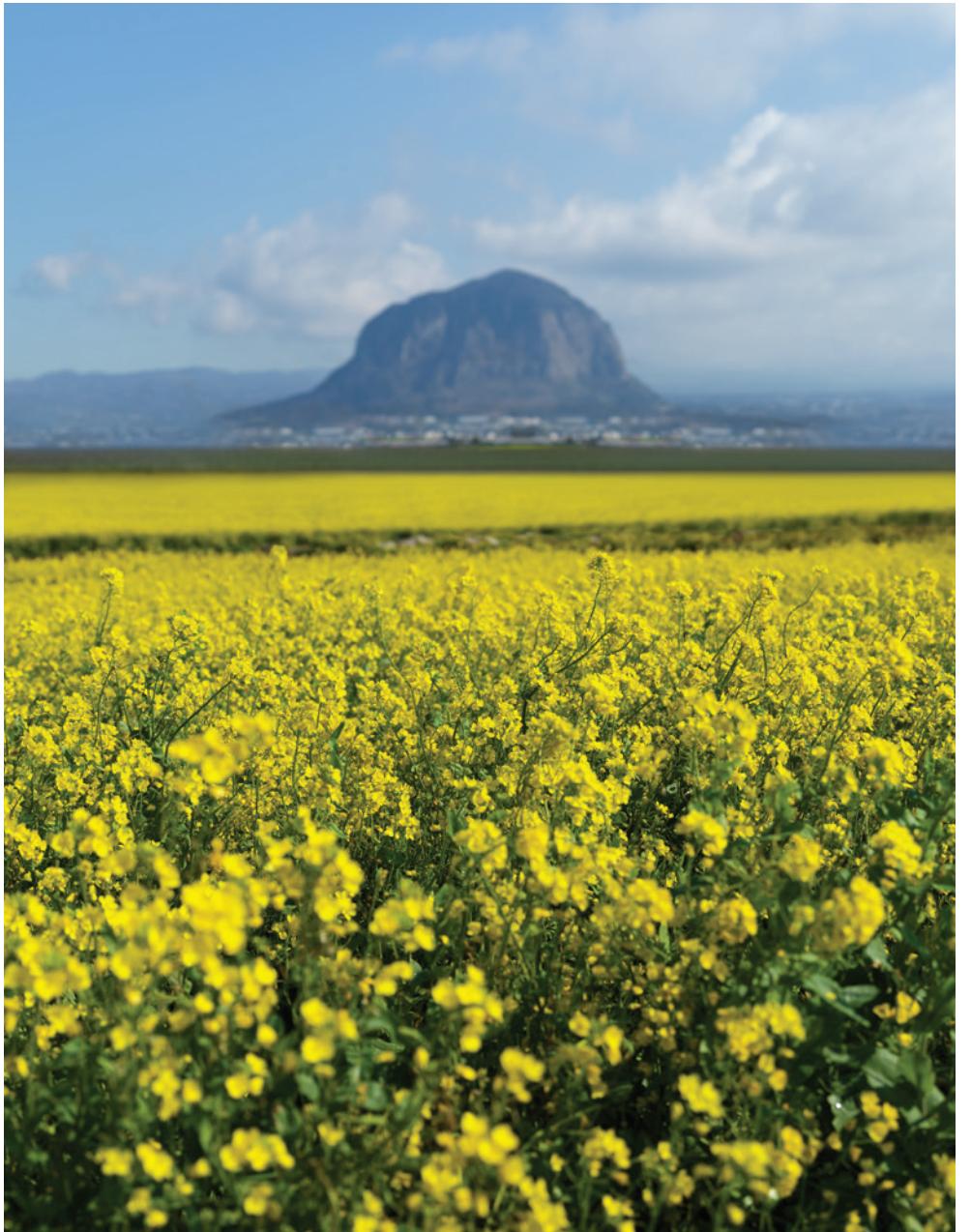


전통을 결들인 따뜻한 신소재 공예

공예는 오랜 시간 사람의 손을 통해 전해지며 시대적 감각과 소재를 담아왔다. 아크릴, 플라스틱, 알루미늄과 다양한 합성 섬유 등 전통에서 벗어난 소재로 최첨단을 걸으면서도 공예로서의 가치와 멋을 지닐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아날로그의 손맛과 우리 전통의 미학을 결들여 낯설지 않은 풍경으로 채워주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공예는 신소재와 전통이 어우러져 더욱 깊어지고 섬세하며 확장 가능한 콘텐츠가 되었다.



왼쪽 페이지 1 전통 호족반을 재해석한 살구색 노란색의 폴리카보네이트 소재 투명반은 하지훈 작가 by 조은수갤러리. 2 웃칠이 된 유리잔은 정은진 작가. 3 'Ancient future 연작 01 화이트 시리즈' 장은 김현희 작가. 4 고대 토기를 모티브로 제작한 달 향아리 형태의 화병은 김규태 작가. 5 백말총에 천연 염색해 매듭술로 만든 밀총 삼각 노리개는 정다혜 작가. 6 능화 문양 표지 전통 책,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통 장정 오침안정법으로 옆은 전통 책 책갑은 모두 지희승 작가 by 한지라이프. *청록색 페인트벽은 'DET543'으로 덴에드워드 논현점
오른쪽 페이지 1 울퉁불퉁한 형태의 'Chubby Series' 세라믹 화병은 김민주 작가. 2 다리가 세 개인 알루미늄 스타일과 스티로폼 위에 우레탄 코팅 후 플라스터로 마감한 투스 체어는 모두 최동욱 작가. 3 나무 조각 작품은 유현 작가. 4 결정유로 작업한 작은 향아리는 녹원요. *연보라색 페인트벽은 'DE6004'로 덴에드워드 논현점



사륵사륵 내려앉는 빛의 서정

쏟아지는 금빛 햇살에 세상이 기지개를 켜는 봄날이다. 보드라운 바람과 흐드러지는 꽃물결,
푸른 바다의 하얀 포말이 엮어내는 노래 덕분에 새록새록 행복이 차오른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가볍고 화사한 숨결

환한 계절을 주저 없이 누리기 위한 준비는 패팩팅 메이크업 라인에 맡기자. 하루 종일 숨 쉬듯 편안한 밀착력과
완벽한 커버력으로 해사한 봄볕 같은 피부로 완성해준다. 살아 숨 쉬며 오랜 시간을 견디는 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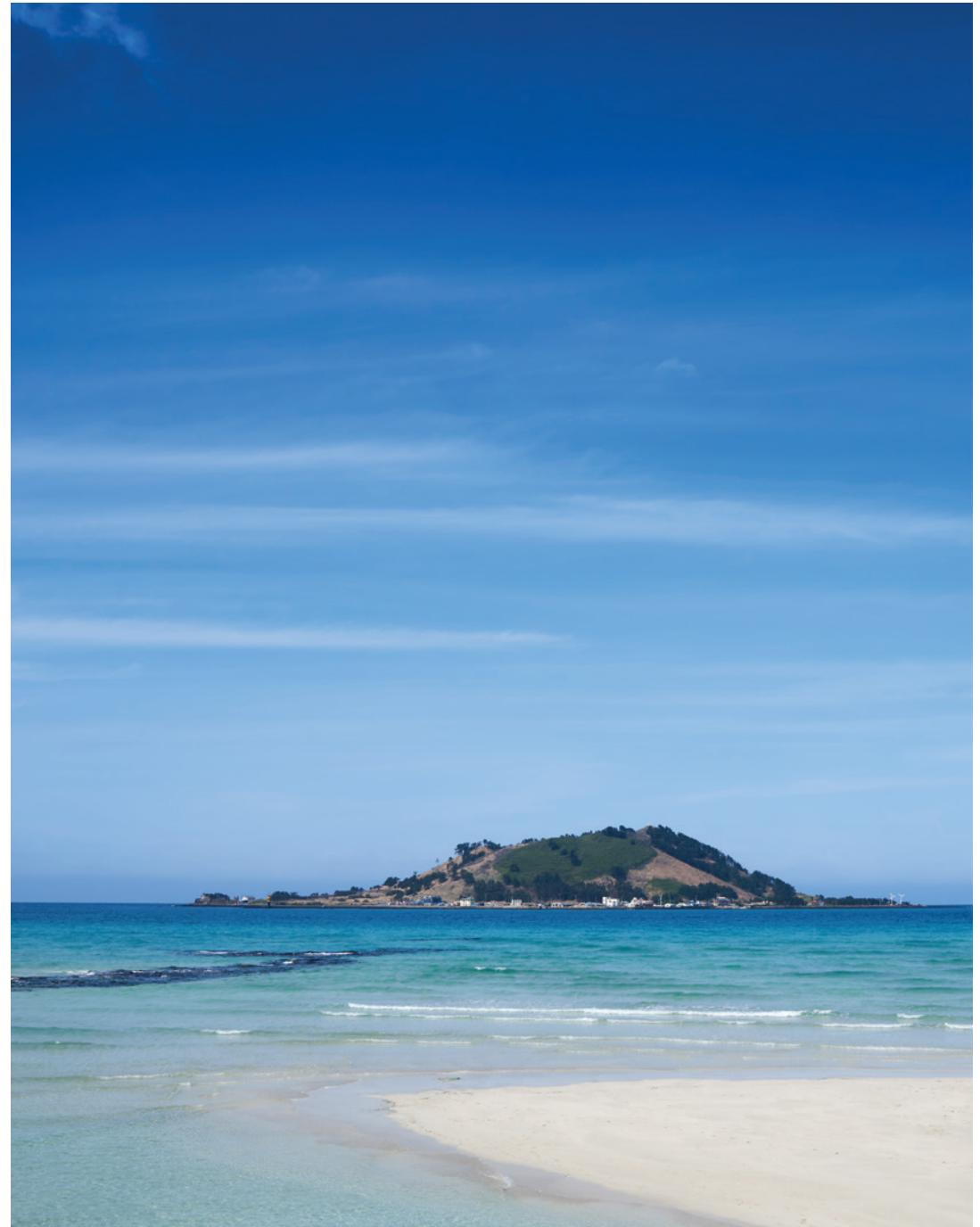
한지에서 착안한 통기성 메이크업 기술 덕분이다. 여기에 설화수만의 탁월한 스킨케어 성분이 처방되어 피부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꿔준다. 지속력과 커버력이 강점인 패팩팅 파운데이션과 윤기 피부를 연출하는
패팩팅 파운데이션 글로우로 구성되었다. 각 35ml 7만원대



오로라의 신비롭고
황홀한 빛을 옷칠로
표현한 '빛-소반'과
'빛-코스티'는
이윤정 작가.

그립고 애듯하게 마주 봄

저드넓은 바다에 섬이 있기에 위안이 된다. 누군가는 섬을 쓸쓸하다고 하고, 때론 척박하다고도 하지만 수평선 끝자락에 포근히 떠 있는 섬은 다정하기 그지없다. 물을 그리워하는 애듯한 마음마저 눈부신 섬을 마주 보는 호사 덕분에 요동치던 마음이 잔잔해진다.



파도에 다듬어진
돌멩이를 떠올리며
아크릴 소재로
만든 '펩 버튼 햄'은
강은비 작가:



오래 오래 반짝이는 고운 결

피부를 자극하는 다양한 유해 환경을 한번에 막아줄 수 있는 강한 방어막이 필요한 요즘, 상백크림이 궁극의 희망이 된다. 자외선을 비롯해 초미세먼지와 일상에서의 블루 라이트까지 차단하는 인티풀루션 선케어(SPF50+/ PA++++)를 담당하는 동시에 피부를 편안하게 지켜주는 저자극 진정 방어막과 피부 밝기를 개선하는 브라이트닝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부드러운 크림 타입으로 촉촉한 광채 피부를 연출하는 'NO.1 크리미 글로우'와 신뜻한 밀크 타입으로 톤업 피부를 연출하는 'NO.2 밀키 톤 업'으로 선보인다. 각 50ml 8만5000원대

자연을 조화롭게 버무린 밥상

우리 땅에서 제철에 나는 재료에는 생명 에너지가 그득하다. 이 기운을 해치지 않고 고스란히 섭취하는 '마크로비오틱' 방식은 선조들의 섭생법인 '약식동원 藥食同源'의 원리를 담은 건강한 비법이다. 생동하는 봄을 담는 밥상을 마크로비오틱으로 차려본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요리 & 스타일링 이재현(마크로브이 스튜디오)



왼쪽 페이퍼 나무의 결과

특성을 고스란히 살린
트레이, 돌을 닦은 천연
비누는 모두 아뜰 시즌.

오른쪽 페이퍼 보리색 도트

무늬가 신비롭게 입혀진
흑유 접시는 뷔로 피피에.

눈과 입이 즐거운
비트 돼지감자 수프



재료

비트 · 양파 · 돼지감자 100g씩, 다시마 우린 물 3컵, 월계수잎 1장, 마늘 1/2톨, 소금 1/3작은술,
국간장 3방울, 레몬즙 1큰술, 달래 1~2줄기, 금귤 2알, 올리브유 약간

만드는 법

- 비트는 껍질을 벗기고 사방 1cm 크기로 깎아 썬다. 2 마늘과 양파는 다지고 돼지감자는 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 6등분한다. 3 냄비에 다진 마늘, 양파, 월계수잎을 넣고 올리브유를 두른 뒤 중불에 올려 양파의 달콤한 냄새가 날 때까지 볶는다. 4 비트와 돼지감자를 넣고 함께 볶다가 다시마 우린 물을 채소가 잡길 정도로 부은 후 뚜껑을 닫고 끓인다. 5 비트 특유의 냄새가 사라지면 남은 다시마 우린 물을 뺏고 한소끔 끓인 뒤 월계수잎을 건진다. 6 가스 불을 끄고 ⑥를 핸드블렌더로 간 뒤 소금과 국간장으로 간하고 레몬즙을 넣는다. 7 ⑥을 그릇에 덜고 씨를 빼 금귤과 2~3cm 길이로 썬 달래로 장식한다.

온기를 품은 다정한 맛
당근 세발나물 샐러드



재료

당근 120g, 소금 1/2작은술, 세발나물 40g, (드레싱) 호두 16g, 다진 마늘 1/4작은술,
올리브유 2큰술, 레몬즙 1큰술

만드는 법

- 1 당근은 채 썰어 소금을 뿌려둔다. 2 세발나물은 깨끗이 씻어 물기를 빼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다.
- 3 호두는 손으로 작게 부순 뒤 프라이팬에 넣고 고소한 냄새가 날 때까지 중약불에서 볶는다.
- 4 ③에 드레싱 재료들을 넣고 살짝 억혀 따뜻한 드레싱을 만든다. 5 ④의 불을 끄고 ①의 당근을 넣어 가볍게 섞은 후, 먹기 직전에 세발나물을 넣어 섞는다.

향긋한 봄 잔치
봄나물 카펠리니



재료

갖은 봄나물(취나물, 미나리, 냉이, 달래, 참나물, 전호나물 등) 100g, 카펠리니 면 320g, 들기름 1큰술, 소금 1/2작은술, 마늘 간장 1큰술, 레몬 슬라이스 4장, 레몬 필 약간
*마늘 간장은 진간장 70cc, 국간장 30cc을 섞고 통마늘 5알을 얇게 슬라이스해서 넣은 뒤 4~5일 숙성시켜 만든다.

만드는 법

- 1 봄나물은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소금을 한 꼬집씩 뿌려둔다. 2 카펠리니 면은 끓는 물에서 3~4분 삶은 뒤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뺀 후 들기름, 소금, 마늘 간장으로 간간하게 간을 한다. 3 그릇에 ②를 먼저 담고 ①의 봄나물을 올린 뒤 레몬 슬라이스와 레몬 필을 뿌린다.

은은하고 신선한 별미
방풍소스 콜리플라워 스테이크

재료

콜리플라워 300g, 소금 · 후춧가루 적당량씩 (방풍소스) 방풍나물 15g,
소금 1/2작은술, 된장 1/4작은술, 올리브유 4큰술

만드는 법

1 콜리플라워는 모양을 살려 4등분한다. 2 방풍나물은 끓는 물에 데쳐 건지고,
데친 물을 3큰술 남겨둔다. 3 달군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강불에서
콜리플라워를 노릇하게 굽는다. 투명해지면 불을 끄고 소금과 후춧가루를
뿌린다. 4 밖서에 데친 방풍나물, 나물 데친 물, 소금, 된장, 올리브유을 넣고 갈아
소스를 만든다. 5 접시에 구운 콜리플라워를 담고 소스를 곁들인다.



담백한 봄 날의 디저트

딸기 두부 무스



재료

딸기 · 두부 150g씩, 칡녹말 1큰술, 메이플 시럽 2작은술, 소금 · 애플민트 약간씩

만드는 법

1 딸기는 꼭지를 따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1개는 토핑용으로 남겨둔다. 2 끓는 소금물에 두부를 데친
뒤 물기를 뺀다. 3 절구에 딸기, 두부, 칡녹말, 메이플 시럽을 넣고 곱게 빻아서 페이스트 상태를 만든다.
4 내열 용기에 ③을 붓고 250°C로 예열한 오븐에서 10분간 굽는다. 5 ④에 딸기와 애플민트로 장식한다.



위대한 선율에 어린 애절한 향수

Warsaw & Tongyeong

쇼 팽 의 폴 란 드 바 르 샤 바 & 윤 이 상 의 통 영

타국을 떠도는 이방인의 심장은 늘 떠나온 곳을 향하게 마련일까. 잠 못 드는 밤을 가득 메우는 그리운 고향의 풍경.
어느 음악가는 오선지 위 정갈한 솜씨로 애달픈 그 마음을 음표에 눌러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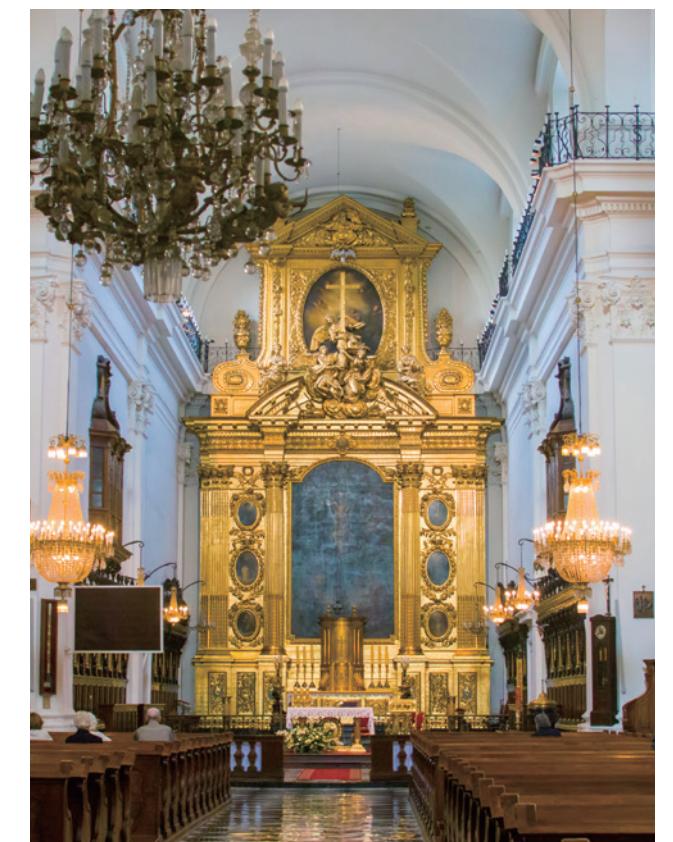
에디터 민소연 사진 셔터스톡, 통영시청



폴란드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바르샤바. 16세기 중부 유럽에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으로 '동쪽의 파리'로 불렸다. 쇼팽이 한평생 그리워한 모국이기도 하다.

폴란드, 그중에서도 바르샤바를 알기 위해서는 이 도시의 풍경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서로 다른 목적을 지니고 탄생한 수많은 역사 속 건축물들이 폴란드의 역사 그 자체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엄숙하고 폐쇄적인 구조에 다소 위협적인 모습으로 우뚝 솟은 첨탑이 눈길을 끄는 ‘문화과학궁전’은 소비에트 연방 시절 스탈린이 우호의 뜻으로 건립했다. 중세와 근세를 거치며 수없이 이름이 바뀐 왕국과 공화정 시기에 지은 왕궁도 눈에 띈다. 서기 966년 피아스트 왕조가 성립된 후 줄곧 로마 카톨릭을 국교로 삼아 도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성당을 마주할 수 있다. 그중 성십자가성당(Kościół Świętego Krzyża)은 프레데리크 쇼팽(Frédéric François Chopin)의 심장이 안치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흥미로운 사실은 정작 쇼팽은 프랑스에서 사망했고 그 시신은 파리의 페르 라셰즈 묘지(Cimetière du Père Lachaise)에 안장되어 있다는 것.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쇼팽은 19세에 ‘페아노 협주곡 제2번’을 발표하며 유럽 무대에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린 후, 39세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 당시 폴란드는 프

In order to really get to know Poland, especially the city of Warsaw, you need to take a close look at the city's landscape because the city's historical buildings, each of which was built with a very specific purpose in mind, can tell the history of Poland. Warsaw has other notable palaces that were built by countless kingdoms throughout the middle and modern ages, as well as during its republican period. In Warsaw, you will also come across a number of cathedrals of all sizes, which the Poles began building when the Piast Dynasty made Roman Catholicism as its state religion in 966 CE. Among the long list of Warsaw's cathedrals, the most renowned may be the Holy Cross Cathedral(Kościół Świętego Krzyża), which is where the heart of Frédéric François Chopin is enshrined. Interestingly, Chopin died in France, and his body was buried in the Cimetière du Père-Lachaise in Paris. So, why is his heart buried in Poland? Chopin first made a name for himself on the European stage when he released “Piano Concerto No. 2” at the tender age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통영 한려수도 중심에 자리해 아름다운 항구와 수많은 섬들이 절경을 이룬다. 윤이상, 유치환, 박경리 등 걸출한 예술가를 배출했다.



©김상근

로이센과 제정 러시아, 오스트리아-3국의 지배를 받는 시기였다. 1830년 7월 혁명의 영향을 받아 바르샤바에도 혁명의 바람이 일었으나, 제정 러시아의 탄압으로 혁명의 불길은 이내 사그라든다. 처참한 조국의 현실, 건강상의 문제와 내내 싸우며 유럽을 떠돌던 쇼팽의 음악적 지향은 언제나 바르샤바를 향하고 있었다. 죽기 전까지 고향을 그리던 그는 “내 심장만은 바르샤바로 보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 애절한 그리움에 화답하듯 바르샤바 시민들은 그의 이름을 딴 국제 공항과 박물관 등 다양한 기념 시설을 건립하여 뒷을 기리고 있다.

쇼팽의 예술적 성취와 고국 폴란드에 대한 사랑이 바르샤바 시민의 ‘자부심’이라면 대한민국이 낳은 20세기 최고의 음악가 윤이상은 명실상부 통영을 상징하는 예술가다. 통영에서 태어난 윤이상은 오사카음악대학에 진학하며 음악을 공부하고, 귀국 후 고향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다. 이후 그는 작곡 기법과 음악 이론을 심화하기 위해 나이 마흔에 유럽행 유학길에 오른다. 서양의 음악 양식에 동양의 요소를 접목한 독자적인 그의 음악은 유럽 음악계에서 크게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른바 ‘동백림 사건’에 휘말려 간첩으로 몰리고 사형 선

of 19. Unfortunately, he never made it back home until he died at the age of 39. At that time, Poland was ruled by Prussia, Russia, and Austria. Throughout his entire life, Chopin's music always had a yearning for Warsaw while he was struggling with the travesties in his home country and his own health issues. While painting his hometown on his death bed, Chopin's last wish was to have at least his heart sent to Warsaw. Just as Chopin's artistic achievements and love for his home country are revered by the citizens of Warsaw, Isang Yun, the most brilliant Korean musician of the 20th century, is considered the pride and symbol of Tongyeong. Born in Tongyeong, Isang Yun attended the Osaka College of Music to study music, and upon returning home, he devoted all of his energy to nurturing younger students in his hometown. Later, he traveled all the way to Europe at the age of 40 to refine his compositional techniques and delve deeper into music theory. His unique music, which combines Eastern elements with Western music style, was widely acknowledged for its excellence

고까지 받은 그는 이후 특사로 자유의 몸이 되자 결국 국적을 서독으로 바꿨고, 1995년 11월 베를린에서 눈을 감을 때까지 고국에 돌아올 수 없었다.

“나는 통영에서 자랐고, 통영에서 그 귀중한 정신적, 정서적인 모든 요소를 내 몸에 지니고 그것을 나의 정신과 예술적 기량에 표현해 나의 평생 작품을 써왔습니다. 유럽에 체재하던 38년 동안 나는 한 번도 통영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잔잔한 바다, 그 푸른 물색, 가끔 파도가 칠 때도 파도 소리는 나에겐 음악으로 들렸고, 그 잔잔한, 풀을 스쳐 가는, 초목을 스쳐 가는 바람도 내겐 음악으로 들렸습니다.” 인터뷰에서 이처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절실히 풀어냈던 그는 2018년, 드디어 통영에歸했다. 통영시의 통영국제음악당 뒷마당, 바다가 오롯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마련된 그의 묘소에서는 몽돌해변의 파도 소리가 음악처럼 생생하다. 이제 통영 곳곳에서 음악가 윤이상의 숨결이 느껴진다. 윤이상기념관부터 베를린하우스, 윤이상국제음악공연장, 통영국제음악제 등 다채로운 공간과 행사가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던 그의 향수를 위로하고 있다. S

in the European music world. However, the East Berlin Incident changed Yun's life. He was convicted of espionage in his country and sentenced to death. When he was released by a special pardon, Yun became a West German citizen, and he was never allowed to set foot in his home country until he died in Berlin in November 1995. “I grew up in Tongyeong, and I spent my life channeling the mental and emotional aspects I honed in my hometown towards the mental and artistic skills I used to create my music. During my 38 years in Europe, I have never forgotten about Tongyeong, particularly the calm sea, the blue water, and the sound of the waves intermittently hitting the beach. The sound of those waves was music to my ears. The calmness and the wind blowing across the grassy hills and forests were also music to me.” In an interview, Yun confessed his longing for his hometown. In 2018, his spirit finally made its way to Tongyeong's shores. Now, you can feel the spirit of musician Isang Yun wherever you go in Tongyeong.

눈부시게 황홀한 빛을 머금다

귀하디귀한 재료들을 엄선해 담은 진설 스킨케어
성분이 진설 메이크업 라인에 담겨 진귀한
안티에이징을 선사한다.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피부는
안티에이징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황홀한 감동.
한결같이 탄탄하게 빛나는 피부는 더 이상 꿈이 아니라
곁에 머무는 현실이 되었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글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진설 세럼 쿠션 TIMETREASURE RADIANCE SERUM CUSHION

진설 스킨케어의 성분을 담아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안티에이징 효과를
선사하며 원색하고 섬세하게 커버하는 프리미엄 세럼 쿠션. 얇고 매끈하게
피팅되는 탄력 팅 텁지체의 탄력감이 피부를 터치할 때마다 그대로 전달되어
촘촘하고 균일한 동안 메이크업을 완성한다. 1g×2 1만원대

HOW TO USE 메이크업베이스 사용 후 쿠션 단계에서 퍼프를 이용하여 적당량을
취해 얼굴에 두드리듯이 발리준다.



진설 세럼 파운데이션
TIMETREASURE RADIANCE SERUM FOUNDATION

진설 스킨케어의 안티에이징 성분을 응축한 텍스처가 미세하게 밀착되어 피부에 바르는 순간 주름과 요철을 메워 섬세한 광채 메이크업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세럼 파운데이션 미세 주름을 완벽하고 정교하게 커버하며 쉽게 질 빌려 메이크업을 빠르게 완성하고,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촉촉함이 유지된다. 30ml 12만원대

HOW TO USE 메이크업베이스 사용 후 내용물을 적당량 취해 브러시로 피부 결을 따라 펴 바르고 가볍게 두드려 마무리한다.



전통 칠보 공예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표현해 일상에 생동감을 전해주는 'Enamelled Vase'는 모두 파란.

진설 파우더 팩트
TIMETREASURE
RADIANCE POWDER
FOUNDATION

진설 스킨케어의 적송 성분을 비롯해 다이아몬드가 함유된 파우더가 피부 결점을 화사하게 커버해 어느 각도에서나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피부를 연출하는 프리미엄 파우더 팩트, 미세 입자 파우더는 아주 작은 모공부터 잔주름까지 섬세하게 도포해 럭셔리한 광채 메이크업을 선사한다. 13g 11만원대

HOW TO USE 파운데이션 사용 후 퍼프를 이용하여 얼굴 전체에 가볍게 빌라준다.



물결치듯 자연스러운 광선을 표현한 브러스.
화병과 센터피스는 모두 이승현 작가.

에센셜 립 세럼 스틱
ESSENTIAL LIP SERUM STICK

입술에 봄의 색을 물들이면 싱그러운 생기를 더할 수 있다. 에센셜 립세럼 스틱의 2호 블라썸 세럼과 4호 로즈 레드는 꽃을 스미듯 화사한 봄을 표현하기에 더할 나위 없다. 세럼 베이스의 2중 보습막은 쉽게 건조해지는 입술을 촉촉하게 보호하고, 행인유가 매끄럽고 윤기 있는 탄력까지 부여한다. 3g 4만원대

HOW TO USE 입술에 건조함이 느껴질 때 낮과 밤 수시로 덧발라준다. 입술의 세로 주름을 채우듯 바른 뒤 생기가 부족한 부분에 한 번 더 발라준다.



적동 소재에 칠보로 다양한 색을 입힌
다용도 칠보 향과 향꽃이는 모두 파란.

진설 메이크업 라인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안티에이징 효과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꿈이 진설 메이크업 라인으로 현실이 되었다. 진귀한 적송의 안티에이징 유효 성분을 66배 더 강력하게 응축시킨 설화수 진설 라인의 핵심 성분인 Red Treasure™가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안티에이징 효과를 유지하여 탄탄하게 빛나는 피부로 연출해준다. 진설 세럼 쿠션과 파운데이션에는 Red Treasure™와 인삼의 유효 성분인 30여 가지 사포닌 중 피부에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활성 뷰티 사포닌을 6,000배 농축한 진세노믹스™도 더했다. 함께 구성된 액상 다이아몬드 파우더 성분은 어느 각도에서나 빛나는 광채 메이크업을 선사한다. 특히 쿠션에 담긴 혁신적인 디자인의 탄력 팅 담지체는 터치하는 순간부터 손끝에서 탄력감이 느껴지도록 구현해, 내용물을 쿠션으로 두드릴수록 균일하고 촘촘한 피부 표현이 가능하다. 파운데이션에서의 탄력 팅 젤 성분은 피부 표면의 주름과 요철을 매끈하고 고르게 메워, 섬세한 피부 결을 선사해 자연스럽게 빛나는 피부를 연출해준다. 파우더 팩트는 진설 스킨케어 라인의 적송 성분과 다이아몬드를 함유한 미세 입자 파우더가 한 겹 한 겹 촘촘하게 발리면서 얇게 도포되어 어느 각도에서나 스스로 빛나는 동안 메이크업을 완성한다. 쿠션과 파우더 팩트에 적용된 모던하고 럭셔리한 명판 디자인마저 소장 욕구를 자극하는 보배스러운 진설 메이크업 라인으로 피부에는 고결한 빛이 내려앉는다. S

TIMETREASURE RADIANCE MAKEUP LINE The dream of enjoying anti-aging benefits even while wearing makeup became a reality with the Timetreasure Radiance Makeup Line. It contains Timetreasure Skincare substances, which constitutes the essence of Sulwhasoo's anti-aging products. Red Treasure™, the core ingredient of Sulwhasoo's Timetreasure Line, features precious anti-aging active ingredients sourced from Red Pine that were enriched 66 times. It helps sustain the anti-aging benefits of the product even with makeup on to create firm and radiant skin. Sulwhasoo also added Red Treasure™ and Ginsenomics™, a substance containing 6,000 times enriched Active Beauty Ginsenoside which is known as the most effective Saponin among a pool of more than 30 Saponins, to the Timetreasure Radiance Serum Cushion and Foundation. This combination of Red Treasure™ and Ginsenomics™ delivers even more radiant makeup that glows at any angle because of an added liquid diamond powder ingredient. In particular, the innovative design of the Cushion Sponge included in the cushion is designed to deliver the resilient texture of the formula the moment it touches the fingertips. This helps create more consistent and dense-looking skin with each additional touch. The elastic fit gel substance in the Foundation fills in wrinkles, and covers blemishes on the surface of the skin smoothly and evenly, creating a delicate skin texture and a naturally glowing skin. Timetreasure Powder Foundation, combined with the Red Pine substance used in the Timetreasure Skincare Line and fine-grained powder containing diamonds, spreads over the skin layer by layer, while the thin cover puts the final touches to a youthful makeup look that appears radiant from every angle. Even the modern and luxurious design of the nameplate used for the Cushion and Powder Foundation, which is similar to the extraordinary Timetreasure Radiance Makeup Line, boosts desirability. The formula, on the other hand, infuses a pure and noble radiance to the skin.



요가 프로그램과 싱잉볼 명상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고, 릴랙스 힐링 스파로 이어지는 'LOVE me' 프로그램은 자연 몸과 마음에 온전한 휴식을 선사한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찾는 도심 속 프라이빗 여행 A private trip within the city to find your inner beauty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여행을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즐겨보자.
완벽한 오감 만족은 물론 선물 같은 휴식이 준비되어 있다.

에디터 박효성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건강하게 가꾸는 데서 시작한다. 설화수가 아시아의 지혜를 통해 외면과 내면의 균형을 찾아주기 위해 정성을 기울여온 이유도 이 때문이다. 최근에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마련한 'LOVE me' 프로그램 또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해 내면의 휴식을 통한 아름다움을 완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프라이빗 웰니스 라이프'를 제안하는 체험 서비스 LOVE me는 서울 도심을 새로운 방식으로 여행하며 일상의 활기를 되찾아주는 데도 도움이 된다.

LOVE me 프로그램은 프라이빗 요가 클래스와 싱잉볼 명상 중 선택해 즐길 수 있으며 각 프로그램 후에는 뭉친 근육과 스트레스를 이완시키는 섬세한 설화수 테라피스트의 손길이 더해져 온전한 휴식을 제공한다. 도심에서 고요하게 즐기는 프라이빗 요가 클래스는 전문 요가 강사의 맞춤 솔루션으로 자세와 호흡을 가다듬는 요가 후 컨템포러리 한방 스파로 피로를 풀어준다. 친구, 연인, 가족 등 최대 3명까지 프라이빗하게 참여 가능하며 날씨에 따라 푸르른 봄이 기득한 도산공원을 바라볼 수 있는 루프탑에서 요가를 즐기며 진정한 여유를 느낄 수 있다. 싱잉볼 명상은 소리의 파장과 진동으로 감각을 일깨우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다. 싱잉볼이 만들어내는 높고 낮은 신비로운 소리에 귀 기울여 보면 어느새 온몸의 긴장을 풀리고 혼탁하고 흐트러진 마음이 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어지는 릴랙싱 힐링 스파는 일상에 지친 자신을 들여다보는 힐링 타임을 선사할 것이다.

프로그램이 끝나면 바디 프로필 촬영도 제공하여 일상을 여행으로 만드는 잊지 못할 추억까지 선물한다. 외면뿐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과 풍요로움을 채울 수 있는 LOVE me 프로그램의 비용은 각 20만5000 원대이며 설화수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S

The "LOVE me" program, which was recently introduced at the Sulwhasoo Flagship Store, heals the tired body and mind, and helps you put the final touches to your beauty regimen with classes that are designed to achieve inner relaxation. You can choose between a private yoga class and a singing bowl meditation class. Then, after each session, you can completely relax with a meticulous massage performed by a Sulwhasoo therapist who is trained to relieve the tension and stress in your muscles. The private yoga class, which you can enjoy in full serenity despite being surrounded by the cityscape, includes customized solutions created by professional yoga instructors that help adjust your posture and breathing, and a contemporary herbal spa after the class. Each class is private, and can host up to three people (friends, loved ones, family, etc.). Meanwhile, the singing bowl meditation class is a special program designed to awaken the senses through sound waves and vibrations. If you listen to the high and low pitches produced by the singing bowl, which almost feel mystical, you will notice your body relaxed, and your busy mind slowly emptying itself of any unwanted thoughts. Then, with the relaxing healing spa after the session, you can allow yourself to heal your tired body, and look inward for some introspection. After the program, Sulwhasoo will provide you with a body profile as a parting gift, making your LOVE me session a memorable detour that you will never forget. The LOVE me program is available from KRW 205,000 per person. Please book your session in advance at Sulwhasoo's official webs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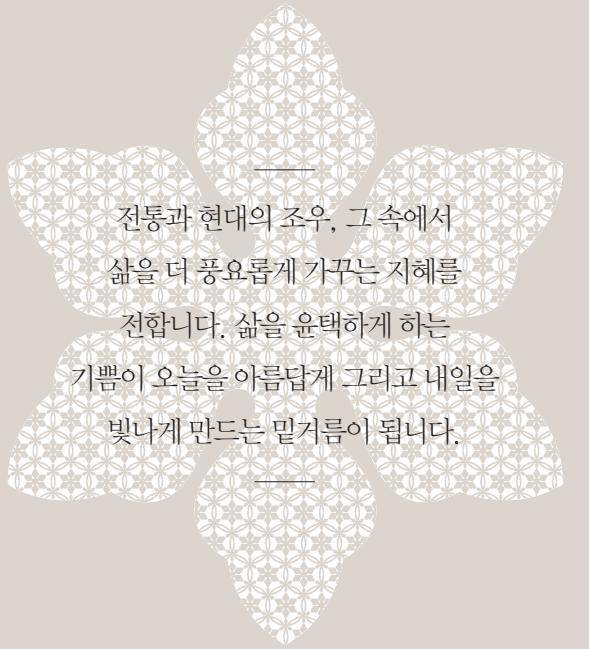
마침내, 명작이 되다

설화수 진설명작

수천 년 아시아의 지혜에 완벽을 더해 탄생한 진설명작
전설적인 힘을 가진 영지의 생명력을 그대로 담아
마침내, 시간을 초월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Sulwhasoo

의 히 다



전통과 현대의 조우, 그 속에서
삶을 더 풍요롭게 가꾸는 지혜를
전합니다.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쁨이 오늘을 아름답게 그리고 내일을
빛나게 만드는 맙거름이 됩니다.



공예 플랫폼 '취프로젝트'가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부채 '합죽선'의 가치를 현대에 이어가기 위해 김대성 장인과 협업한 작품.
부채살에 아름다운 그래픽 패턴의 한지를 붙여 현대적인 합죽선으로 제작했다.

정신을 맑게 하는 선듯한 바람처럼

합죽선

부채가 일으키는 바람은 에어컨이 내뿜는 차가운 공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가만히 부채질을 하고 있는 동안 흐트러진 정신이 명료해지고, 어쩐지 그 뜨거운 열기를 지그시 응시하는 기분이 든다. 말하자면 '우아한 견딤'이라 할까.

에디터 민소연 사진 이종근, 오후원 도움 주신 곳 취프로젝트, 김대성(국가무형문화재 제128호 선자장 이수자)

손이나 종이 등을 가지고 바람을 내어 시원함을 느끼는 원리를 이용해 만들어낸 도구가 바로 부채다. 부채는 순수한 우리말로, 바람을 일으킨다는 뜻의 '부'와 가는 대나무 도구라는 뜻의 '채'가 어우러져 '손으로 부쳐 바람을 일으키는 채'라는 의미를 이룬다. 한자로 부채는 '선扇'이라 하는데 이는 문을 뜻하는 '호戸'자에 날개를 뜻하는 '우羽'가 합쳐져 만들어졌다. 이는 곧 '집 안에 있는 날개' 혹은 '날개로 엮은 문짝'이란 뜻이 된다. 과거 새의 깃털로 부채를 만들었다는 것을 떠올리면 참으로 맞춤한 글자라 깨닫는다.

부채의 역사

우리는 언제부터 부채를 사용하였을까? 인류는 처음엔 큰 나뭇잎 등의 자연물을 이용해 바람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소수 민족들이 여전히 큰 나뭇잎을 별에 말려 부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이후 새의 깃털이나 지푸라기, 대나무 깁질 등을 엮어 둥글고 납작한 부채를 만들어 썼다. 중국 진晉나라 때의 학자 최표가 쓴 <고금주古今注>에 보면 중국의 순임금이 요임금의 선위를 받아 임금이 된 뒤, 현인을 구하여 문경을 넓히고자 '오명선五明扇'을 만들었다고 전한다. 이 오명선은 기록만 있을 뿐이라 구체적인 모양은 알 수 없다.

우리나라 문헌 중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사기>의 견훤조에 "우리 태조를 추대하여 즉위하였다. 견훤은 이 말을 듣고 그해 8월에 일길 찬—吉食 민국을 파견하여 이를 하례하고 공작선孔雀扇과 지리산 대화살[竹箭]을 보냈다."라는 대목이 있다. 이를 보아 우리나라에는 고려 초(10세기)에 이미 부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견훤이 고려 태조에게 공작선을 보냈다는 기록은 <고려사>에서도 보인다. 여기서 공작선은 공작의 깃으로 만든 둥근 부채다. 한편 접는 부채(접부채)의 경우 송나라 사람 광야허의 <도화견문지圖畫見聞志>에 고려 사신 최사훈이 1076년 신종 희녕 병진년(문종 30)에 '접는 부채摺疊扇'을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로써 접는 부채가 11세기 중엽에는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멋과 실용을 겸비한 다양한 쓰임새

부채는 냉방이 전무했던 과거, 특히 옷을 여러 겹 입었던 선비들에게는 필수품이었다. '단오 선물은 부채요, 동지 선물은 책력冊曆이리'는 속담처럼, 더위가 시작되는 단오는 부채를 서로 주고받는 풍속이 있었는데 이는 고려 중기부터 시작해 조선 말기까지 성행했다. 조선 말기까지는 해마다 공조에서 단오 부채를 만들어 진상했는데, 임금은 그 것을 받아 신하들에게 하사했다. 또한 전라도와 경상도 관찰사, 절도



합죽선 제작 과정

한 자루의 합죽선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대나무를 쪼개어 깎고 다듬는 과정을 수백 번 반복해야 한다. 그 긴 여정은 2부 6방으로 나누는데 2부는 부채의 외형을 다듬는 골선부와 부채를 장식하는 수장부로 구분하고, 6방은 2부의 과정을 세부적으로 구분한 것이다. 대나무를 자르고 쪼개어 부챗살을 깎는 합죽방, 부채 형태를 만드는 정련방, 부채에 무늬를 새겨 아름다움을 더하는 낙죽방, 부채 외형을 매끄럽게 다듬는 광방, 부채에 종이를 붙이는 도배방, 부채 머리를 고정하고 장식을 다듬는 사복방을 말한다. 2부 6방 중 지면에서 소개하는 과정은 40살의 부챗살에 한지를 붙이는 도배방 과정이다. 재단한 종이를 접어 먼저 20칸으로 나누고 반대로 돌려 다시 반씩 접어 가면 40칸이 된다. 같은 방식으로 너비의 반씩 접어주면 80칸이 되고 끝을 반듯하게 자르는 빌림 과정을 거친 뒤 찬쌀풀을 고르게 바른 부챗살 사이사이에 접은 종이를 끼워 붙인다. 풀이 잘 붙을 수 있도록 머리와 끝부분을 종이로 묶어준 후 하루 정도 건조시킨다.

과정 재현에 도움을 주신 김대성 장인은 국가무형문화재 제28호 선자장 김동식 선생님에게 합죽선 제작을 전수받아 5대째 합죽선 보전과 전승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의 외관外官 역시 각기 특산품으로 부채를 궁중에 진상했고, 부채를 생산하는 각 고을의 수령들도 궁중에 진상하거나 서울 각처에 선사했다. 그중 특히 전주와 남평의 부채를 제일로 쳐주었다. 이러한 기록은 〈경도잡지京都雜志〉와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등의 책에서 볼 수 있다. 〈경도잡지〉에는 “단옷날 또 새 부채를 나누어준다. 이를 ‘단오선’이라 한다. 경관京官에게는 궁중의 부채를 나누어주는데 대나무 살에 종이를 바르고 새나 짐승의 그림을 그렸는데 오색의 비단을 감았다.”는 내용이 있다.

부채의 종류는 크게 방구 부채와 접는 부채(접부채)로 나뉜다. 부챗살에 비단이나 종이를 붙여 만든 동근형의 부채를 ‘방구 부채’, 접었다 펴다 할 수 있게 고안한 부챗살에 종이를 붙여 만든 것을 ‘접는 부채’라 한다. 여기에서 파생된 수많은 부채의 종류는 방구 부채의 경우 부챗살의 모양과 부채 바탕의 꾸밈에 따라, 접는 부채는 부챗살의 수와 부채 꼭지의 모양, 부속품에 따라 그 명칭이 달라진다.

접는 부채는 고려 시대에 널리 그 제조 기술이 발전하고, 조선 시대에는 중국과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접는 부채가 유행하면서 튼튼하면서도 멋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합죽선이 탄생했고, 부챗살이 많을수록

록 상품上品으로 여겨졌다. 20, 30, 40, 50살 등 용도에 따라 다양한 크기의 합죽선이 제작되었는데 왕가에서는 50살 합죽선, 사대부들은 40살 합죽선을 일반적으로 즐겨 사용했다.

조선 시대 남성 부채의 용도는 다양했다. 더울 때 바람을 내어 더위를 식히는 것은 기본이고,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는 역할, 풍류를 즐길 때 흥을 표현하는 춤사위로, 부채의 면 위에 서화를 그리거나 시를 쓰는 예술의 도구이기도 했다. 또한 마음을 전하는 정표로도 주고받았다. 부채는 수많은 풍속화나 인물화에도 등장한다. ‘마상청앵도馬上聽鶯圖’는 김홍도가 말을 타고 기행을 즐기는 자신의 모습을 50대에 그린 것인데, 그림의 주인공은 언덕 위에 벼들가지가 돋기 시작하는 쌀쌀한 봄날에 조그마한 부채를 펴서 들고 있다. 계절에 관계없이 부채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비와 관리의 초상화에는 상징적으로 부채가 함께한다. 심지어 구한말 외국인이 우리나라 관복을 입고 찍은 사진에서도 그렇다. 당시의 부채는 고고한 지위의 상징이자 우아한 맵시의 마침표와도 같았을 터이다. 정성스런 마음으로 하나하나의 단계를 따라 아름다운 부채를 만들다 보면, 그 안에 옛 선비의 고아한 마음이 선듯한 바람처럼 깃들지 않을까. S



선비의 내밀한 편지를 위한 가구

Furniture designed to store the communiqüs among scholars

항상 예를 갖추고 절제된 생활을 해야 했던 조선 시대 선비들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진솔한 감정을 드러내곤 했다.

그리고 사방 벽면에 ‘고비’라는 편지함을 걸어 귀한 마음과 진실한 생각이 담긴 편지를 보관했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국립중앙박물관, 김현수 작가

조선 시대 선비들은 편지를 통해 개인의 감정을 나타내고 가족과 친구 사이에 서간을 주고받으며 우정과 애정, 생각을 나누었다. 선비가 하루 동안 지켜야 하는 세세한 일정을 시간별로 정리한 〈일용지결日用指訣〉에도 오시(午時, 11~13시)에 해야 할 일 중 ‘친지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내용이 나올 정도로 편지는 중요한 소통 방식이었다. 다산 정약용은 물론 최치원, 박지원 등 내로라하는 조선 학자들은 수많은 편지를 남겨 그 시절의 생활 모습을 짐작케 하며, 강직했던 그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그러니 선비들이 기거하는 사랑방에는 편지를 보관하는 가구인 고비가 필수품이었다. 얇은 나무판을 주먹 하나 정도 간격을 두어 앞뒤로 대고, 그 사이를 두세 단 정도 구분해 종이 두루마리를 수평으로 끼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벽에 걸어두는 가구가 바로 고비다. 보통 오동나무나 소나무 같은 가벼운 나무로 만들며 앞판에는 매화, 대나무 등을 조각한다. 대나무 살을 엮어 만든 죽고비를 문인 사대부들이 즐겨 쓰기도 했는데, 쾌적하고 시원한 느낌의 꾸밈과 더불어 선비의 절개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겼다.

고비는 중국과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것으로 온돌 문화로 인한 좌식 생활에 따라 등장하게 되었다. 문갑 등의 낮은 가구들이 자리를 잡고 나면 넓은 벽면 여백이 남아 신수, 화조 등의 그림과 더불어 고비를 걸어둘 수 있었던 것이다. 고비는 우리말이며 ‘考備’ 또는 ‘高飛’로 쓰는 것은 한자 소리만 따다 쓴 취임이다.

김현수 작가가 만든 고비는 책을 꽂을 수 있는 선반과 조명으로 재탄생했다. 전통 고비의 미감을 현대적인 기능과 조형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아스텔 아크릴을 사용해 사물이 놓였을 때 비친 실루엣이 하나의 장식 요소로 보이게 했고 빛을 밝혀 쓰임새도 더했다.S

Scholars during the Joseon Dynasty expressed and exchanged their feelings among their families and friends. They also built friendships, showed their affection, and shared their thoughts through letters. The “Confucian Scholar’s Daily Routine”, which outlines the daily routine a scholar is expected to follow, states that “writing letters to close friends” should be done between 11:00 and 13:00. That goes to show just how important letters were as a means of communication. Naturally, these scholars needed a dedicated piece of furniture in their study to keep all of their letters safe. “Gobi” is a piece of furniture that is hung on the wall. It is made with thin sheets of wood, and it is approximately the width of a fist. Inside, the box is divided into two or three compartments to help the owner keep paper scrolls placed horizontally. Gobi is usually made with light wood (e.g., paulownia or pine), and more often than not, it features carvings of plum blossoms or bamboo on the front panel. In other words, Gobi for the study was on a simpler and weightier side to create a tempered, moderate look. It is unique to Korean culture, and it cannot be found in China and Japan. Recently, artist Kim Hyun Soo showcased his take on the traditional Gobi with a lighted bookshelf. It is a reinterpretation of the aesthetics of a traditional Gobi infused with modern functions and sculpting techniques. Kim used satin acrylic to reflect the silhouette when an object inside the bookshelf appears as a decorative item. He also added light to make the bookshelf more practical.



고비, 조선시대



고비, 김현수 작가

현대미술의 한복판을 거닐다

아모레퍼시픽미술관 현대미술 소장품 특별전

<APMA, CHAPTER THREE – FROM THE APMA COLLECTION>

아모레퍼시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현대미술 소장품 특별전 <APMA, CHAPTER THREE – FROM THE APMA COLLECTION>은 탁 트여 드넓은 공간 안에서 세계 현대미술의 흐름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경험이었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이종근



아모레퍼시픽미술관의 현대미술 소장품 특별전 <APMA, CHAPTER THREE>는 2019년 2월 첫 현대미술 소장품 특별전이었던 <APMA, CHAPTER ONE>과 2020년 7월 고미술을 다룬었던 <APMA, CHAPTER TWO>에 이어진 세 번째 전시다. 이번 전시는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던 현대미술 소장품이 포함되어 더욱 호기심을 부른다. 총 일곱 개의 전시실에서 40여 명의 작가가 이루어낸 회화, 설치, 조각, 미디어,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50여 점이 아모레퍼시픽미술관 특유의 건축적 미감이 돋보이는 공간에 펼쳐진다. 1960년대 개념미술에서 시작해 2020년 제작된 최신 작품에 이르는 넓은 스펙트럼은 현대미술의 역사와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한다. 특별전에 들어가 처음 마주하는 ‘1 전시실’에서는 강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회화 작품들과 함께 중앙에 배치된 현대 목공예품이 눈에 띈다. 2017년 로에베 공예상(Loewe Craft Prize)을 수상한 에른스트 캠펠(Ernst Gamper)의 작품들이다. 마치 전통 공예품을 연상시키는 그의 목기들은 나무 본연의 질감과 특성을 최대로 표현하고 있다. 에른스트는 나무가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형태를 만들어 표면의 상처나 자연적 무늬를 살린다. 일상에서 평범하게 쓰이는 그릇이면서 그 무엇보다 자연의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가공품이면서 자연물인 모순적 정체성이 흥미롭다. 한편 스텔링 루비(Sterling Ruby)의 회화 ‘창문. 솜사탕(WIDW. FAIRY FLOSS.)’도 인상적이다. 높이 3.3미터, 폭 2.5미터에 이르는 커다란 캔버스와 함께 분홍, 하늘, 초록의 산뜻한 배색이 관심을 끈다. 회화, 조각, 콜라주, 비디오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이며 사회적 이슈를 이야기해온 작가는 보통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하나의 화면에 모아 상반되는 형태와 의미를 결합하고, 거기에서 또 다른 상징을 탄생시킨다.

‘2 전시실’은 입구부터 기대감을 품게 한다.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기다란 벨을 통해서 들어서면 공중에 매달린 기묘한 조형들과 마주한다.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는 한국의 현대미술가 두 명의 작품이다. 우선 20세기 문화와 사회, 역사의식 등에 철학적 탐구를 바탕으로 다채로운 장르의 작업을 선보이는 이불 작가의 초기작 ‘사이보그 W7’을 비롯한 작품 네 점이 눈에 들어온다. 앤니메이션의 캐릭터 의상처럼 보이기도 하는, 여성 신체의 곡선과 기계적 구조를 결합한 시도나 샹들리에처럼 빛을 산란시키며 보석처럼 반짝이는 건축적 오브제 등이 아름다움과 불안함을 동시에 발산하며 신선힘을 안긴다.



〈APMA, CHAPTER THREE– FROM THE APMA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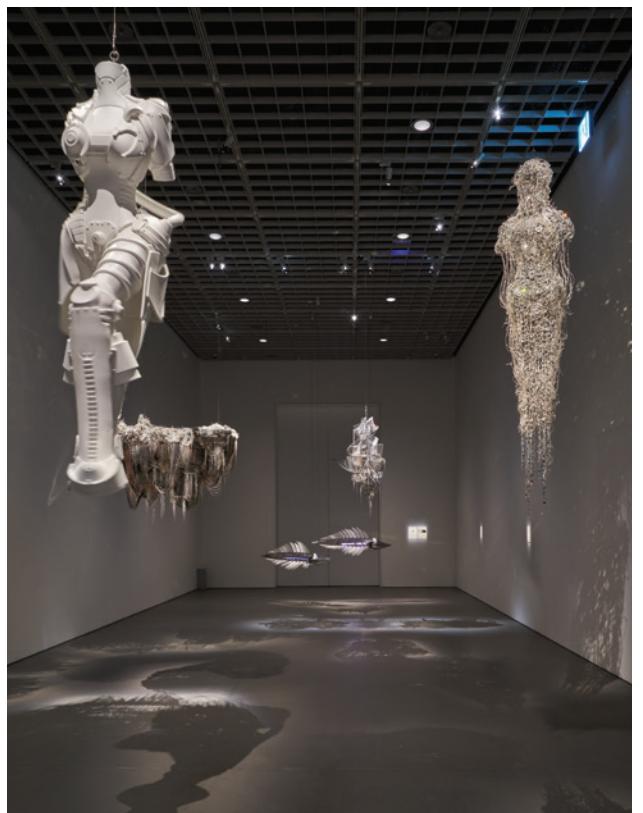
전시 기간 2021. 2. 23(화)~8. 22(일)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전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람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오후 5시 30분 티켓 발권 마감), 월요일 휴관

전시 장소 아모레퍼시픽미술관(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전시 예약 아모레퍼시픽미술관 공식 홈페이지(<http://apma.amorepacific.com>)



이번 특별전은 한국 현대미술사의 과거와 현재를 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김창열부터 강형구, 이불과 최우람 작가에 이르는 다채로운 변화와 흐름이 흥미롭다.

안쪽에서 보이지 않는 물결에 날개(혹은 지느러미)를 움직이는 조형물은 최우람 작가의 ‘ULTIMA MUDFOX(Ultima Mudfox)’다. 작가가 정교한 키네틱 작업으로 구현한 섬세한 움직임은 그저 계속 바라보고 싶게 하는 힘이 있다.

‘4 전시실’로 통하는 복도 역할을 하는 ‘3 전시실’에 이르자 순간 공간이 왜곡되는 착각에 빠진다. 그저 아크릴 실이 공간을 가로지르며 만들어낸 가상의 면이지만, 굉장히 존재감으로 정말 공간이 분리된 느낌을 준다. 허공이 거대한 유리 혹은 거울이라 인식될 정도로, 이 가상의 면을 한 발 넘어 통과하는 시도에 긴장이 따랐다. ‘4 전시실’에서는 현대미술사의 주요 전환점에 방점이 되는 상징적 작품들과 현대미술 작가들의 실험 정신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개념미술가 조셉 코스스(Joseph Kosuth)의 네온 작품 ‘다섯 개의 색, 다섯 개의 형용사’는 말 그대로 ‘형용사’라는 단어를 다섯 개의 색과 다섯 개의 언어로 표현했다.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형식을 통합하는 시도가 바로 작품의 결과이자 작가의 의도다. 이 작품으로 미니멀리즘 이후 현대미술 사조에 대두된 개념미술의 윤곽을 가늠해보았다. 그 밖에 얀 보(Danh Vo)나 양혜규 등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반갑게 마주했다.

‘5 전시실’에서는 장영혜중공업의 영상 ‘유토피아로 여행하기’가 상영되고 있다. 경쾌한 재즈와 함께 디지털 기술 시대를 대변하는 메시지가 쉬지 않고 흘러나온다. 이어서 ‘6 전시실’은 넓은 공간에서 대형 회화와 설치, 조각을 시야의 어떤 방해 없이 관람할 수 있게 꾸몄다. 피타 코인(Petah Coyne)의 조형물 ‘무제 #1243(단어의 비밀스러운 삶)’은 그 크기와 형태에 압도된다. 왁스에 담근 조화와 나뭇가지를 겹겹이 쌓아 올려 만든 형태는 아름다움과 그로테스크함을 동시에 가진다. 마지막으로 ‘7 전시실’에서는 지난 1월 작고한 김창열 화백의 작품 ‘회귀(Recurrence)’와 그의 생전 모습이 담긴 육명심 사진작가의 사진을 감상할 수 있다. 한국 현대미술을 이끈 작가의 삶을 조명하고 애도를 표하는 특별한 공간이다.

동서양을 망라한, 역동적인 현대미술의 흐름을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는 〈APMA, CHAPTER THREE〉는 코로나19로 무더진 예술적 감수성을 살아나게 할 특별한 경험이다. 안전을 위해 아모레퍼시픽미술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니, 더욱 여유롭고 쾌적한 관람이 가능하다. S



세상의 분주함을 잠시 세우는 차茶, 그릇

스타일리스트 문지윤

잡지를 보는 즐거움의 가장 큰 지분은 근사한 화보에 있을 것이다. 따스한 빛이 드리운 아래 아름다운 가구와 소품과 색이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게 배치된 방이 펼쳐지면, 이내 페이지를 넘기던 손이 멈추고 만다.

글 민소연 사진 이종근

작업실의 이름은 ‘뷰로 드 글로디아’, 직역하면 ‘글로디아의 사무실’이다. 화려한 느낌의 어감에 비하면 그 의미는 군더더기 없이 담백하다. 변화가의 모퉁이, 경사 높은 언덕길을 지나 문지윤 스타일리스트의 공간과 마주했다. 큰 작업이 끝난 후라 많은 물건들이 들어차 있다.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특별한 아름다움을 지닌 공간을 연출하는 일이 그의 업이다. 일의 특성상 수많은 물건들과 만나고 헤어진다. 그중 어떤 것이 애장품이 될까?

“일을 하면서 다양한 기물을 접합니다. 그중에서도 도자 기물, 특히 다관을 좋아합니다. 실은 원래부터 차를 즐기는 편은 아니었어요. 하루를 커피로 시작하는 사람이었고, 일이 바쁠 때 카페인의 화학적인 자극에 기대기도 했죠. 그에 비해 차는, 뭐랄까 제겐 그냥 물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문지윤 스타일리스트는 이천도자재단과 함께 컨설팅 디렉터로 일하던 중, 우연히 김진완 도예가의 다관과 만났다. 작가의 작업실 선반 한 편에 있는 그 검은 덩어리를 본 순간 시간이 멈추는 느낌이 들었다고. “아름다운 물건을 좋아하고 모으다 보니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수많은 물건들을 대하고 그중에서 써야 할 것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조금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관을 보고 가슴이 덜컹하며 두근거렸어요. 아주 오랜만에 어떤 물건으

로 인해 마음이 움직인 거죠.”
다관이 마음에 들어오자 차에 대한 공부도 하고 싶어졌다. 사랑에 빠진 이들이 으레 그러하듯이, 차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많은 정성과 시간이 들어간다. 찻물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우려내는 과정에는 집중과 섬세함이 필요하다.

“바쁘게 달려오는 동안 제 자신만의 여유와 공간은 미처 만들어두지 못했어요. 차를 공부하고 즐기는 순간은 오롯이 저만의 시간이죠. 차를 배울수록 깊은 세계가 펼쳐져요. 혼자 마시는 것보다 여러 사람과 나눌 때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지요. 그 향과 맛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오감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니까요. 그렇게 나누는 차의 즐거움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수없이 만들었던 다기 세팅이 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세계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누구보다 시각적인 일을 하지만 그 화려함 아래에 강처럼 흐르는 본질적 의미를 탐구하는, 물건 이면에 깃든 만든 이의 마음을 발견하는 사람. 스타일리스트 문지윤의 작업이 남다른 이유다. S



초보다 더 빛나는 촛대

오랜 세월 동안 초를 꽂아 어둠을 밝히는 데 사용하던 촛대는 이제 공간을 비추는 작품이 되었다. 덕분에 마음도 빛난다.

에디터 박효성



나무 소재의 팔을 펼치거나 접어서 공간 크기에 따라 다양한 조형미로 연출할 수 있는 촛대는 디자인하우스 스톡홀름 노르딕 라이트 by 리빈.



테트리스 게임처럼 다양한 입체 도자기 블록을 쌓아 모양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테트리스 캔들 홀더'는 조은비 작가.



고요한 밤에 촛불을 켰을 때 불꽃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곡선으로 디자인한 황동 촛대는 윤여동 작가.

100여 년 전부터 전기 조명이 보급되면서 더 이상 촛불을 어둠을 밝히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데도 촛대는 여전히 일상에서 빛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공예 작가들이 각양각색의 소재에 자신의 미학적 감각을 더해 촛대를 선보여서다. 조각 작품처럼 멋진 촛대 덕분에 단순한 모양의 양초가 서정과 낭만의 상징이 될 수도 있었다. 촛대는 예로부터 왕실이나 상류 계층이 향유하는 귀한 물건이었다. 일반 서민들은 관혼상제나 제사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는 당시 초를 만드는 기법이 까다롭고 재료도 귀했기 때문이다. 나비와 박쥐 문양을 새긴 유기 촛대의 화려하고 묵직한 모습이나 은입사 공예같이 섬세하고 고급스러운 전통 공예로 제작된 조선 시대 촛대에서 높은 품격을 엿볼 수 있다. 정교하고 수려한 공예 작품과도 같았던 촛대였기에 필수 품으로서 그 쓸모가 다한 지금도 여전히 일상의 예술로 대접받는 것 이리라. 촛대 자체로 멋지지만 초를 자주 켜는 것도 삶의 멋을 더한다. 집 안을 은은한 향기로 채우고 몸과 마음에 평안을 선물해 건강까지 밝혀준다. S



금속과 세라믹으로 제작한 여러 유닛을 결합해 새로운 미감의 촛대를 완성할 수 있는 '전기 캔들 홀더'는 과종범(금속 공예) 작가, 최유진(도자) 작가.



구리에 컬러를 입히고 문양을 더해 깊고 풍부한 멋을 담은 촛대는 김윤진 작가 by 포터리밍.



담백한 백자와 골드 포인트가 어우러지고, 자연스러운 곡선이 흐르도록 빛은 아름다운 촛대는 헤미 by 서울번드.



투명한 컬러 레진으로 생동감을 더하고 유연한 곡선의 미와 고급스러운 활동이 조화를 이룬 '베이직 테이퍼 캔들 홀더'는 유정김 스튜디오 by 라운디드.



벼려진 맥주병과 주스병 등을 거의 10단계의 과정을 거쳐 완성한 고운 촛대는 박선민 작가.



금속 위에 나전 작업으로 자개의 빛을 더한 티라이트 초 전용 캔들 홀더는 김현주 작가 by CRAFTREE.



기하학 도형들을 결합해 조각하면서 활동 꽃이 피어나는 구조로 설계한 'Fire Flower' 촛대는 임현철 작가.



옻칠을 배우느라 머물렀던 남원의 풍경을 모티브로 은행나무와 물푸레 나무로 모양을 만들고 옻칠로 마감한 촛대는 유남권 작가.



금속을 접기 기법으로 표현해 새로운 조형적 형태를 선보인 활동 촛대는 최연철 작가 by 라운디드.

바람과 예술을 수놓다

한땀 한땀 정성으로 피워낸 고운 자수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아름다운 예술이다. 염원이 깃든 자수는 여전히 곁에 머물며 삶의 미감을 우아하게 채운다.

에디터 박효성



건강, 행복, 풍요로움 등의 의미를 담은 전통 문양을 설화수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자수 브로치.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의 포장 서비스인 '마이 지향보 서비스'를 통해 만날 수 있다.



길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전통 문양을 설화수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 노리개에 수놓아 선물 포장이나 장신구로 활용할 수 있다.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의 포장 서비스인 '마이 지향보 서비스'에서 만날 수 있다.



명주에 꽃과 나비를 전통 자수 기법으로 수놓은 전통 자수 '브로치'는 이영란 작가 by 공예정원.

인류가 가장 오래도록 이어온 장식 방법 중 하나인 자수는 우리 여인들의 손끝에서 고유한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다. 한국 전통 자수가 정립된 조선 시대에는 의복과 생활용품을 자수로 장식하고, 회화나 글씨를 병풍에 수놓는 감상 자수 등의 용도로 나눠 발전해왔다. 다만 겸 소한 생활을 강조했던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의복을 화려하게 치장할 수 없어 관복의 흉배나 후수의 자수로 직위를 표시했고, 활옷 같은 혼례복은 길상무늬로 다채롭게 꾸미는 것이 허락되었다. 아이들의 돌옷에는 무병장수를 빌며 수를 놓았다. 대신 주머니나 보자기, 베갯모 등 각종 생활용품에 가족의 건강과 장수와 부귀, 다산 등을 상징하는 문양을 빼곡히 수놓았다. 감상을 목적으로 제작된 자수 병풍은 감상자의 복을 기원하는 길상적인 내용을 수놓았는데 주로 화조도花鳥圖, 백동자도百童子圖같이 부부 금슬과 다산을 의미하는 것은 여성의 공간에, 사군자도四君子圖 등 선비의 덕목을 표현한 것은 남성의 공간에 두었다. 자수의 전통적인 사용과 지금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지만 정성과 소망, 은유의 예술을 담은 한국 자수가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곁에 둘수록 고매한 취향이 수놓인다. S



궁중에서 사용했던 보자기의 자수 문양을 일러스트로 풀어낸 손수건은 국립박물관 뮤지엄샵.



조선 시대 예복인 당의 한복의 곡선과 저고리의 옷고름을 모티브로 디자인하고,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모란을 수놓은 암치마는 국립박물관 뮤지엄샵.



장수와 부귀, 자손번창 등을 비는 길상의 염원이 담긴 '봉황문 인문보 스카프'는 조선 시대 궁중에서 사용하던 보자기를 재해석했다. 단하.



조선 시대 궁중 수방에서 수를 놓는 장인을 '화이장花兒匠'이라 부른 것에 착안해 <꽃의 아이 시리즈>로 자수를 놓은 안경집. 전통 자수를 현대 감각으로 재해석했다. 박정연 작가.



조선 시대 왕비가 새해 문안을 드릴 때 차던 향주머니인 진주 협낭을 미니어처 크기로 제작한 브로치. 흥색 비단에 금사로 수를 놓고 진주로 장식했다. 수현문화 by 공예정원.



비단에 책가도를 재해석해 수놓은 가방. 무학과 포인트 자수는 '자연수'라는 전통 자수 기법을 재현했다. 이김각.



부부의 화합을 의미하는 월양 한쌍과 구름, 연꽃 등을 명주실로 수놓은 비단 명함 지갑은 조희화 작가 by 자수공방 비늘.



정조의 능행차도에 그려진 '여령태평무'를 전통 자수로 재현한 브로치는 방체옥 장인 by MALLIKA.

Sulwhasoo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설화수 제품들

윤조 라인



윤조에센스
Youth Master Technology로 피부 장벽을 다각도로
케어해 더 힘 있게 빛나는 피부를 만들어주는 필수
인티에이징 부스터
60ml | 97,000원대 | 90ml | 130,000원대
120ml | 160,000원대 (LTD)

윤조마스크
제일단TM을 미세망 고문 시트에 담아 매끄러운
피부를 선사하는 집중 복합성 케어 마스크
5매 | 60,000원대

에센셜 라인



자음수
김은 흡수력으로 피부를 충실히 적셔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젤 타입 스킨
125ml | 57,000원대

자음유액
매끄럽게 펴 빌리고 말끔히 흡수되어 피부를
보습하게 만들어주는 소프트 로션
125ml | 63,000원대

설리안크림
눈가 피부에 알게 밀착되어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주름 개선 아이크림
25ml | 115,000원대

단력크림
자산체TM이 피부를 자지하는 힘을 높여
탄탄한 피부로 가꿔주는 탄력 강화 크림
75ml | 105,000원대

윤조 퍼펙팅 라인



윤조에센스 퍼펙팅
Youth Master Technology로
피부 장벽을 다각도로 케어해
더 힘 있게 빛나는 피부를 만들어주는
필수 인티에이징 부스터
90ml | 130,000원대
120ml | 160,000원대 (LTD)

자음수 퍼펙팅
사계절 피부를
편안하게 보호해주고
총명감을 선사하는 젤
타입 스킨
125ml | 57,000원대

자음유액 퍼펙팅
사계절 피부를
편안하게 보호해주고
속부터 촘촘하게 차운
가꿔주는 영양 에멀전
90ml | 63,000원대

자음생크림 퍼펙팅
진세노이스TM와 애문동 추출물이
피부를 자지하는 힘을 높이고
영장을 공급해 사계절 탄탄하고
유연한 피부로 가꿔주는
탄력 영양 크림
60ml | 250,000원대

수분영양크림
자음에이징 부스터는
피부에 강력한
수분과 풍부한 영양을
제공해 꽉 찬 보습으로
속坑강TM이 케어해주는
사계절용 수분영양크림
50ml | 70,000원대

에센셜 퍼펙팅 라인



주름
Sulwhasoo
TIME MASTERS
HONESTAGE
CREAM

자음생 라인



자음생수
귀하게 얻은 중심수TM이
농밀한 수분을 공급해
촉촉한 피부 비장을 선사하는
인티에이징 스킨
125ml | 80,000원대

자음생생센스
진세노이스TM와 진생비리
성분을 사용해 천연 활력을
와는 지금으로 시달린 피부를
개선해주는 레스큐 앰플
20g | 130,000원대

자음생유액
농축된 인삼 에너지를 담은
미세 칼슘 진세노이스TM가
聩 천 듯 탄탄하고 매끈한 피부를
선사하는 인삼 칼슘 앰플
50ml | 200,000원대

자음생아이크림
귀하게 얻은 중심수TM이
파부에 탄력과 영감을 공급하는
인티에이징 아이크림
125ml | 90,000원대

자음생크림
자름과 단력을 케어해 힘 있고
매끈한 눈가 피부를 선사하는
홍삼 인티에이징 아이크림
20ml | 180,000원대

자음생크림 라이트
강력한 인삼 결정체가 피부
힘을 선사하는 인삼
인티에이징 크림(신뜻한 질감)
60ml | 250,000원대

자음생마스크
자음생크림의 성분과 더블 래핑
시트TM이 탄탄하게 빛나는
인삼 안도에이징 크림
50ml | 120,000원대

설린 라인



설린수
매화의 향신화 에너지를 담아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 비장을
선사하는 생기 베이스 스킨 컨디셔너
150ml | 75,000원대

설린아이크림
매화의 향신화 에너지를 담아 외부
피부에 의한 디스크사를 노화의 장애를
케어해 환한 눈기로 가꿔주는 생기
단력 아이 젤 크림
20ml | 100,000원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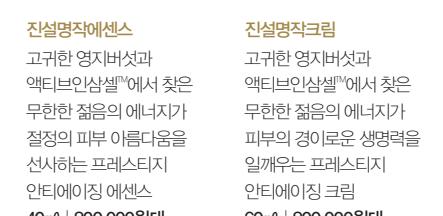
설린크림
매화의 향신화 에너지를 담아 외부
피부를 만만하게
케어해주는 생기 단력 크림
50ml | 150,000원대

수율 라인



수율
시원한 자작나무 수액이
피부를 만만하게
케어해주는 수분 크림
40ml | 800,000원대

진설명작에센스



고귀한 영자비섯과
액티브인삼셀TM에서 찾은
무한한 젊음의 에너지가
절정의 피부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프레스티지
인티에이징 에센스

60ml | 800,000원대

자정 라인



자정클렌징폼
백토 성분의 노폐물을 제거해
화학 피부로 가꿔주는
브라이트닝 클렌징 폼
150ml | 40,000원대

자정수
자천 피부를 정돈해주고
미백 흥분을 끌어올리는
젤 타입 브라이트닝 스킨
125ml | 65,000원대

자정유액
피부 위로 촉촉힘이 부드럽게
퍼져 유연하고 맑은
상태로 가꿔주는
브라이트닝 로션
125ml | 70,000원대

자정미백스팟트리트먼트
백삼 미백 성분이 맑고
투명한 아름 피부
빛을 끌어올려 주는
브라이트닝 스팟 트리트먼트
50ml | 210,000원대

자정미백크림
브라이트닝 활성 성분이
촉촉하게 빛나고 투명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브라이트닝 크림
80ml | 65,000원대

자정토닉
백삼 성분이 담은
젤 포뮬러가 매끄럽게
빛나는 피부 비장을
가꿔주는 브라이트닝
토닉
50ml | 65,000원대

자정미백마스크
고밀착 시트가 즉각적으로
맑은 인색과 단련감을
선사해주는 브라이트닝
마스크
5매 | 65,000원대

상백크림
(SPF 50+ / PA+++)
자외선 위험 환경 자국으로부터
피부를 강력하게 방어하고 편안하게
지켜주는 저자극 브라이트닝 선크림
30ml | 60,000원대

1호 크리미 글로우

2호 밀키 톤 업

진설 라인



진설클렌징폼
진한 기름이 개운함과
촉촉함을 동시에 선사하는
프리미엄 클렌징 폼
150ml | 60,000원대

진설수
피부 생생력을 강화하는 적송에
건강하고 생기를 담아 피부에
길이 있는 촉촉함을
선사해주는 프리미엄 한방
인티에이징 에센스
125ml | 125,000원대

진설에센스
강한 기운과 개운함과
촉촉함을 동시에 선사하는
프리미엄 한방
인티에이징 에센스
50ml | 380,000원대
(리필 334,000원대)

진설유액
피부 생생력을 강화하는 적송에
해송유수 성분을 더해 윤택하고
매끄러운 피부를 선사하는
프리미엄 한방
인티에이징 에멀전
125ml | 140,000원대

진설아이크림
적송의 강한 생생력과
골든아이 케어에서 가진 눈가
착취함과 부기 를 가라앉힐
프리미엄 한방
인티에이징 아이크림
25ml | 270,000원대

진설크림
고농축 적송의 생생력으로
에너지가 피부의 힘을 길러주어
한愈加 깊은 피부를 선사하는
프리미엄 한방
인티에이징 크림
60ml | 470,000원대
(리필 413,000원대)

진설마스크
고농축 적송의 생생력으로
더해 눈가 피부의 힘을 길러주어
한愈加 깊은 피부를 선사하는
프리미엄 한방
인티에이징 슬리핑 마스크
80ml | 200,000원대

옵션 라인



진초파
고운 클레이와 한방 허브
辱물레스TM 모공 클렌징은 물론
예민 피부까지 가꿔주는 촉촉한
허벌 클레이 마스크
120ml | 52,000원대

온용파
목은 각질과 노폐물을 솔
시원히 펴어내 주는
필 오프 마스크
150ml | 48,000원대

백삼파
백삼 성분이 각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사용하면서 스크럽과
마스크의 기능을 동시에 사용하는
말기까지 백삼 마스크
120ml | 72,000원대

여운파
여의 기운으로 맑고 매끄러운
피부로 가꿔주는 수면 팩
120ml | 58,000원대

설안파
여운오일 5대지향 컬렉션
● 청지향 ● 백화지향 ● 윤조지향 ● 홍서지향 ● 흑여지향
귀한 한방 성분을 담아 피부에 깊은 영양 보습을 해주고 자연 소재에서 영감을 받은
설화수 대지향으로 내면의 강성을 일깨워주는 라이트 & 리치 타입 페이셜 오일
20ml | 85,000원대 (라이트 ● ● ● ● 리치 ● ● ● ●)

여온 라인



여온오일 5대지향 컬렉션
● 청지향 ● 백화지향 ● 윤조지향 ● 홍서지향 ● 흑여지향
귀한 한방 성분을 담아 피부에 깊은 영양 보습을 해주고 자연 소재에서 영감을 받은
설화수 대지향으로 내면의 강성을 일깨워주는 라이트 & 리치 타입 페이셜 오일
20ml | 85,000원대 (라이트 ● ● ● ● 리치 ● ● ● ●)

바디 & 헤어



트래블 캐트 백은향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향과 섬세한 텍스처가 내면의 감성을
일깨워 감각적인 바스 퍼퓸을 선사하는 릴리시 트래블 키트
(헤어샴푸, 헤어컨디셔너, 바디워시 바디로션)

50ml x 4 | 55,000원대



동백윤모오일
자연 유래 동백 오일이
끈적임 없이 자연스러운
윤기를 선사하는 헤어 오일

100ml | 35,000원대



핸드크림 5대향 컬렉션
● 청향 ● 백은향 ● 금운향 ● 흥과향 ● 흑진향
한방 오일과 고보슬 젤 포뮬러가
손을 촉촉하게 감싸고 윤기로
기분을 맑게 해주고, 부드럽게 몸을
김싸 피부에 보습과 단백, 윤기를
선사하는 바디로션

40ml | 30,000원대 (라이트 ● ● ● 리치 ● ●)



핸드워시 백은향
한방 오일과 고보슬 젤 포뮬러가
손을 촉촉하게 감싸고 윤기로
기분을 맑게 해주고, 부드럽게 몸을
김싸 피부에 보습과 단백, 윤기를
선사하는 바디로션

300ml | 36,000원대



바디로션 백은향
매화에서 전해지는 은은한 향기
기분을 맑게 해주고, 마일드한 젤
포뮬러가 피부에 촉촉함을
남기는 바디로션

250ml | 60,000원대



바디워시 백은향
매화에서 전해지는 은은한 향이
기분을 맑게 해주고, 마일드한 젤
포뮬러가 피부에 촉촉함을
남기는 바디워시

250ml | 40,000원대

진설 메이크업

2IN1 베이지
23N1 샌드

2IN1 베이지
23N1 샌드

2IN1 베이지
23N1 샌드



진설 세럼 쿠션(SPF50+ / PA+++)
단백 광채 피니시를 연출해주는 인디에이징
세럼 쿠션
11g x 2 | 110,000원대
(리필 55,000원대)

30ml | 120,000원대



진설 세럼 파운데이션(SPF25 / PA++)
단백 광채 피니시를 연출해주는 인디에이징
세럼 파운데이션
13g | 110,000원대(리필 80,000원대)

3g | 40,000원대



진설 파우더 팩트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피부를 연출해주는
프리미엄 파우더 팩트
10g | 45,000원대

10g | 45,000원대

립

1호 애프리콧 세럼
2호 블리셋 세럼
3호 로즈 레드
4호 빈드 선셋
5호 블라썸 코랄
6호 딥 베리
7호 어터 레드
9호 글로우 오렌지
11호 레디언트 레드
13호 세일링 핑크
43호 반드 선셋
59호 마롱 레드
59호 어터 레드



에센셜 립 세럼 스틱
고보습 보습으로 생기 있고 단백 넘치는 입술로
기꿔주는 데일리 립 케어
10g | 45,000원대



에센셜 립 마스크(리커버리)
별풀 성분이 순상된 입술 표면을
촘촘하게 메워 건강하게 기꿔주는
립 마스크
10g | 45,000원대



에센셜 립 마스크(모이스처)
천궁 당구수, 대추 죽풀물이 배관하고 윤기
있는 입술로 기꿔주는 립 마스크
10g | 45,000원대

MEN



보유에센스
남성 피부의 주름, 단백, 칙칙함을 총체적으로 개어해주는 워터 젤
타입의 인디에이징 에센스

140ml | 73,000원대



보유유액
남성 피부 장벽 강화 및 외부 자극에 의한 피부 손상을 개어해주는
고습 인디에이징 로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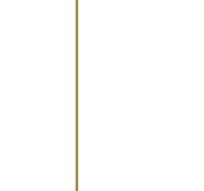
90ml | 52,000원대



보유선크림(SPF 50+ / PA++++)
피부 노화의 근본 원인인 뜨거운 태양 광선으로부터 피부를
지키는 인디에이징 선크림

50ml | 40,000원대

홀리스틱 케어



예생분앰플
천삼화 흥삼이 활행과 피로 개선에 도움을 주어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마시는 흥삼 앰플

20g x 30 | 170,000원대

플래그십 스토어 익스클루시브



운조에센스 랜턴컬렉션
5세대 지음에티(네이티)가 매일 더 건강한 피부로 기꿔주고 아시아
지혜의 빛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적용한 필수 인디에이징 부스터
60ml | 97,000원대
120ml | 160,000원대

125ml | 80,000원대



자음생수 랜턴컬렉션
귀하게 얻은 종삼수TM가 단백과 영양을 공급하는
신선한 디자인을 적용한 필수 인디에이징 부스터
60ml | 90,000원대

125ml | 90,000원대



자음생유액 랜턴컬렉션
귀하게 얻은 종삼수TM가 단백과 영양을 공급하는
신선한 디자인을 적용한
인디에이징 에멀젼
50ml | 200,000원대

60ml | 250,000원대



자음생크림 랜턴컬렉션
인삼 결정제가 피부 활력을 선사하고 아시아
지혜의 빛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적용한
인디에이징 크림
60ml | 250,000원대

60ml | 250,000원대

메이크업밸런서



메이크업밸런서(SPF 34 / PA++)
피부 결과 피부 톤으로 밸런싱하는 메이크업밸런서

35ml | 65,000원대



CC 유액(SPF 34 / PA++)
매끈한 도자기 피부 결로 표현해주는 유액 타입 CC

35ml | 60,000원대



자정 브라이트닝 쿠션(SPF 50+ / PA++++)
진주 및 광택으로 맑고 화사한 피부 빛을 선사하는 자정 브라이트닝 쿠션
젊고 건강한 동안 빛을 위한 인디에이징 쿠션

14g x 2 | 68,000원대

쿠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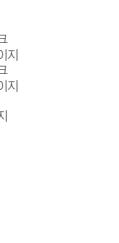
퍼펙팅 쿠션 인тен스(SPF 50+ / PA++++)
젊고 건강한 동안 빛을 위한 인디에이징 쿠션

15g x 2 | 85,000원대(리필 40,000원대)



매화지향 향유
백매화의 생생력을 달은 은은한
향으로 자연 피부와 미용에 에너지를
선사하는 오일 타입의 향유

30ml | 130,000원대



운조지향 향수 스프레이
나무의 따뜻함을 담기는
동양적인 우리 개발의 기품
있는 향이 담긴 향수 스프레이
15ml x 2ea | 120,000원대

15ml x 2ea | 120,000원대



매화지향 향수 스프레이
백매화의 생생력을 달은 은은한
향으로 자연 피부와 미용에 에너지를
선사하는 오일 타입의 향수

15ml x 2ea | 120,000원대



운조지향 향조
나무의 따뜻함으로 나면의
감성을 깨우는 향이 있는
향의 소이스 향조

200g | 100,000원대



매화지향 황조
백매화의 고vac향으로
비단부터 헤어까지 설화수의
홀리스틱 베티를 선사하는
소이스 향조

200g | 100,000원대



에센셜 밤
비단부터 헤어까지 설화수의
홀리스틱 베티를 선사하는
소이스 향조

10g | 40,000원대



립 틴트 밤
촉촉하고 부드러운 입술로
기꿔주는 보습 틴트 밤

10g | 40,000원대



딥 릴랙스 밤
천연 성분으로 지친 피부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미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립 릴랙스 밤
10g | 40,000원대

10g | 40,000원대

퍼펙팅 라인



퍼펙팅 쿠션(SPF 50+ / PA++++)
오래 지속되는 기법과 미세한 커버 촉촉하고 윤기 있는
미무리로 일관한 메이크업을 연출하는 커버 윤기 쿠션

15g x 2 | 65,000원대(리필 30,000원대)



퍼펙팅 파운데이션(SPF17 / PA+)
허루 중일 숨 쉬듯 편안히면서도
원색한 피부를 연출해주는 스키케어링
파운데이션

35ml | 70,000원대



**퍼펙팅 파운데이션 글로우
(SPF17 / PA+)**
허루 중일 숨 쉬듯 편안히면서도 원색한 윤기
피부를 연출해주는 스키케어링
파운데이션

35ml | 70,000원대



**퍼펙팅 스킨케어
(SPF 26 / PA++)**
허루 중일 숨 쉬듯 편안히면서도 원색한 윤기
피부를 연출해주는 스키케어링
파운데이션

14g | 65,000원대(리필 45,000원대)



**퍼펙팅 트윈케이크
(SPF 30 / PA++++)**
허루 중일 숨 쉬듯 편안히면서도 원색한 윤기
피부를 연출해주는 스키케어링
파운데이션

11g | 65,000원대(리필 45,000원대)



퍼펙팅 파우더
허루 중일 숨 쉬듯 편안히면서도 원색한 윤기
피부를 연출해주는 스키케어링
파운데이션

20g | 65,000원대(리필 45,000원대)



퍼펙팅 헤어 헤어 헤어

Sulwhasoo

설화수를 사랑하는 독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



진설 세럼 쿠션(3명)

진설 스킨케어 성분을 담아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안티에이징 효과를 선사합니다. 얇고 매끈하게 피팅되는 탄력 핏 담지체는 쿠션으로 두드릴수록 균일하고 촘촘한 피부 표현이 가능해 동안 메이크업을 완성합니다.



진설 세럼 파운데이션(3명)

진설 스킨케어의 안티에이징 성분을 응축한 텍스처가 피부에 미세하게 밀착되어 섬세한 광채 메이크업 효과를 선사합니다. 미세 주름과 요철을 정교하고 완벽하게 커버해 자연스럽게 빛나는 피부를 연출해줍니다.

(주)아모레퍼시픽 설화수 VIP 고객을 위한 고품격 매거진 <Sulwhasoo>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여성 생활 문화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독자와 가까운 자리에 서 있고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독자 엽서에 내용을 적어 <Sulwhasoo> 편집부 앞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내용은 일찬 기사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 신선한 아이디어 제안과 따끔한 질책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독자 엽서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응모 방법 <Sulwhasoo> 내의 독자 엽서로 우편을 이용해 응모

응모 마감 2021년 7월 10일까지

증정 선물 진설 세럼 쿠션, 진설 세럼 파운데이션

당첨자 발표 98호 독자 선물 당첨자란 참조

2020년 96호 독자 선물 당첨자 명단

자음생에센스(5명)

김은경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박은숙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사수원로
이광주 인천시 서구 건지로
이성금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원로
이윤정 인천시 미추홀구 소성로

자음생앰플(5명)

김유진 광주시 동구 학동 남문로
서순례 경기도 광명시 인현로
주수정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함희경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황성희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인청로

READER'S REVIEW



빛나는 보석은 시간으로 다듬어진다

항상 고급스러운 <Sulwhasoo>에 감동을 합니다. 특히 이번 호는 정경화와 이정은의 이야기가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문화 예술에 관련된 내용이 더 실려도 좋을 것 같아요.
–주수정(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빛나던 옛 영화를 전하는, 꿈의 궁전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을 가지 못해 안타까웠는데 <Sulwhasoo>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여행과 예술품을 접하니 숨통이 트이며 정말 좋았습니다. 다양하고 멋진 장소들을 소개해주세요. –박은숙(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96호 당첨자 선물은 2021년 4월 30일까지 보내드립니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3중 마이크로 타겟팅으로 한층 한층 탄탄하게

자음생에센스는 인삼의 생명력을 6,000배* 이상 농축한 진세노믹스™로 피부 한 층 한 층 탄력을 채우고-세우고-당겨 탄탄한 피부를 완성합니다.

Special Gift

업서를 보내주신 애독자 중 추첨을 통해 정성껏 마련한 Gift를 드립니다

봉합엽서

〈설화수 전국 매장〉

FLAGSHIP STORE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02-541-9270

SPA

설화수 스파 롯데호텔서울 7층 02-318-6121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지하 1층 02-541-9272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4층 02-541-9273

SEPHORA

세포라 파르나스몰점 02-3453-1083
세포라 롯데영플리자점 02-779-9332
세포라 롯데월드점 02-3213-4694

백화점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본점 02-772-3148
롯데백화점 잠실점 02-2143-7192
롯데백화점 강남점 02-531-2165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02-2164-5029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02-3707-1129
롯데백화점 관악점 02-3289-8140
롯데백화점 노원점 02-950-2152
롯데백화점 미아점 02-944-2046
롯데백화점 스타시티점 02-2218-3116
롯데백화점 김포점 02-6116-3150
현대백화점 본점 02-3438-6072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02-3467-8614
현대백화점 신촌점 02-3145-2114
현대백화점 미아점 02-2117-1147
현대백화점 천호점 02-2225-7184
현대백화점 목동점 02-2163-1171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02-2211-0148
신세계백화점 본점 02-310-5081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02-3479-1265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02-2639-4122
캘러리아백화점 압구정점 02-6905-3360

인천광역시, 경기도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 032-242-2139
롯데백화점 안산점 031-412-7748
롯데백화점 평촌점 031-8086-9159
롯데백화점 수원점 031-8066-0157
롯데백화점 분당점 031-738-2172
롯데백화점 일산점 031-909-3224
롯데백화점 구리점 031-550-7912
롯데백화점 충동점 032-320-7135
현대백화점 종동점 032-623-2136
현대백화점 판교점 031-5170-2110
현대백화점 카네스트점 031-822-3140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031-695-1282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031-8082-0343
신세계백화점 하남점 031-8072-1901
캘러리아백화점 평교점 031-5174-7141
AK플라자백화점 분당점 031-709-9694
AK플라자백화점 수원점 031-240-1152
AK플라자백화점 평택점 031-646-6130

부산광역시

롯데백화점 부산점 051-805-0484
롯데백화점 동래점 051-552-4118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30-3183
롯데백화점 광복점 051-678-3166
현대백화점 부산점 051-667-0140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45-2296

울산광역시

롯데백화점 울산점 052-258-5784
현대백화점 울산점 052-228-0116
현대백화점 울산동구점 052-250-4173

대구광역시

대구백화점 본점 053-428-2961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053-426-6036
롯데백화점 대구점 053-660-3054
롯데백화점 삼인점 053-258-3106w
현대백화점 대구점 053-245-2125
동아백화점 수성점 053-781-9295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053-661-1861

광주광역시, 전라노

롯데백화점 광주점 062-221-1139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062-368-6764
롯데백화점 전주점 063-289-3176
뉴코아이몰렛 순천점 061-720-5151

경상도

롯데백화점 창원점 055-279-3116
롯데백화점 마산점 055-240-5193
롯데백화점 포항점 054-230-1190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055-240-1263
신세계백화점 김해점 055-272-1108
캘러리아백화점 진주점 055-791-1165
동아백화점 구미점 054-455-6399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받는 사람

서울시 마포우체국 사서함 117호

〈Sulwhasoo〉 담당자 앞

전화: 080-023-5454(수신자 요금 부담)



Sulwhasoo



아모레퍼시픽 설화수의 <Sulwhasoo>는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고객님께는 추첨을 통해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1. 편치다

설화지혜(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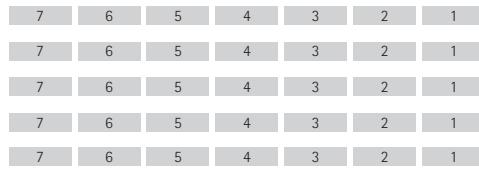
피부 섬기기(12p)

아름다움은 자란다(16p)

새 장인을 만나다(22p)

공간미감(28p)

매우 만족 → 매우 불만족



2. 누리다

설화인(36p)

어우러지다(44p)

설화풍경(5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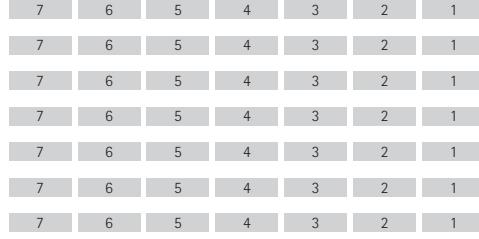
설화보감(54p)

아름다운 기행(60p)

설화수를 말하다(66p)

설화공간(72p)

매우 만족 → 매우 불만족



3. 익히다

배움의 기쁨(78p)

한국의 멋(8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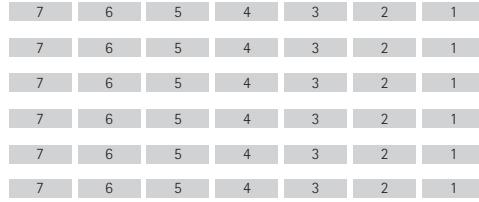
읽다(84p)

설화애장(88p)

집 안 단장(90p)

몸 단장(92p)

매우 만족 → 매우 불만족



+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다음 호 <Sulwhasoo>에 더 적극적으로 실었으면 하는 기사는? (해당 칸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상품 정보

제품 미용법

요리, 인테리어 및 패션

공연, 전시 및 문화 정보

풍경 및 여행지

인물 인터뷰

기타 _____

2. 다음 중 받고 싶은 선물 1개를 선택해주세요. (98p 참조)

진설 세럼 쿠션

진설 세럼 파운데이션

이름 _____

성별 남 여

나이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선물에 당첨되면 해당란에 적어주신 주소 및 전화번호로 개별 연락 드립니다.)

+ <Sulwhasoo>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던 부분과 불만스러웠던 부분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97호 <Sulwhasoo>의 엽서 응모 마감은 7월 10일입니다.

* (주)아모레퍼시픽은 애독자로서 추첨 이벤트 참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주소, 성별, 나이, 전화번호 • 수집 및 이용 목적: 애독자로서 선물 발송 • 보유 및 이용 기간: 애독자로서 응모 마감으로부터 3개월
고객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이벤트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주)아모레퍼시픽은 이벤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업체에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취급위탁을 받는 자: 누리원기획, 기아미디어 • 취급위탁을 받는 업무: 엽서 이벤트 참여자 확인 및 당첨자 게시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강원도, 충청도

엠백화점 춘천점	033-257-4129
AK플라자백화점 원주점	033-811-5502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점	041-552-3358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041-640-5017
현대백화점 충청점	043-909-4124
롯데백화점 청주점	043-219-9219
롯데백화점 대전점	042-528-3320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042-488-5650
세이백화점	042-256-0198

면세점

롯데 김포공항 면세점	02-2669-6730
롯데 명동 면세점	02-759-6662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02-3213-3965
롯데 코엑스 면세점	02-3484-9655
롯데 부산 면세점	051-810-3879
롯데 김해공항 면세점	051-979-1932
롯데 제주 면세점	064-793-3138
신라 장충 면세점	02-2230-3597
신라 인천공항 면세점	032-743-4488
신라 인천공항 면세점 T2 부띠끄	032-743-2151
신라 인천공항 면세점 T2	032-743-2168
신라 제주 면세점	064-710-7324
신라 제주공항 면세점	064-720-0055
HDC 신라 울산 면세점	02-490-3351
신세계 명동 면세점	02-6370-4109.10
신세계 강남 면세점	02-6288-0767
신세계 센텀 면세점	051-775-3141
신세계 인천공항 면세점	032-743-5784
신세계 인천공항 면세점 탑승동	032-743-5784
시티플러스 인천공항 면세점	032-743-5718
에스엠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032-743-6657
에스엠 인사 면세점	02-2120-6210.9
그랜드 인천공항 면세점	032-743-0543
동화 광화문 면세점	02-399-3123
한화 어의도 면세점	02-2136-2779
현대 무역센터 면세점	02-2142-6220
현대 동대문 면세점	02-3668-8124

